

인구와 삶

인구 위기와 불균형

인구는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규모와 구조 등 인구의 특성은 국가의 발전 계획 및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목적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목적으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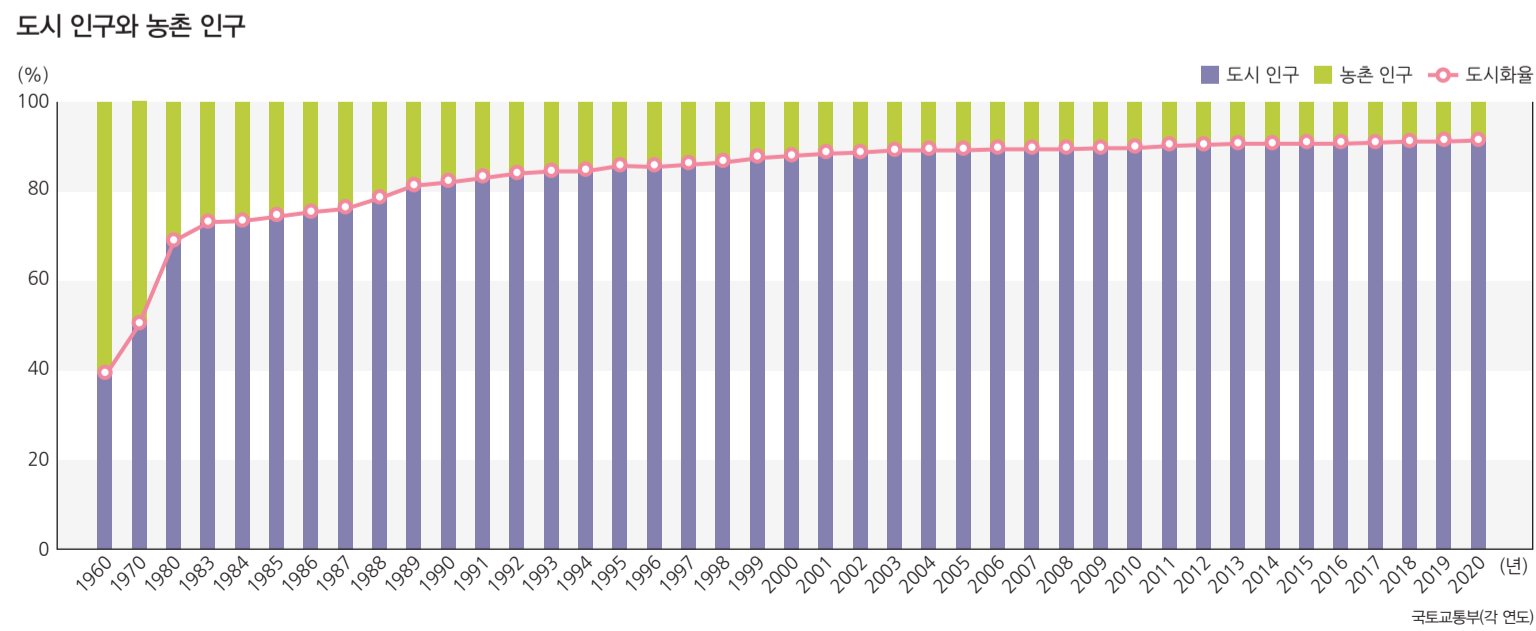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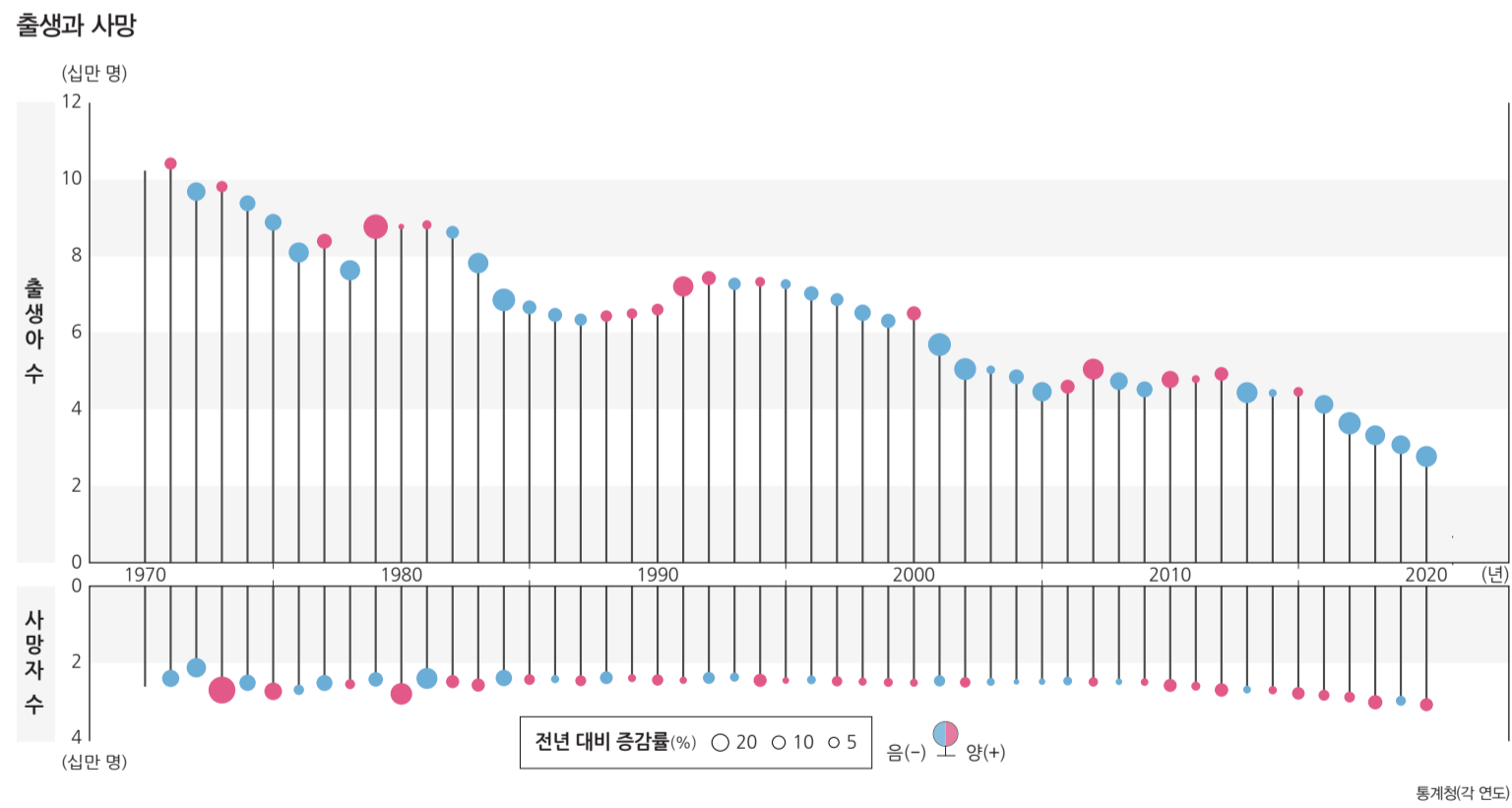
점에서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인구 현황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출생·사망·이동·결혼·이혼 등 인구 변동 요인에 관한 인구 동향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일정 시점에서 단위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하는 총인구는 매일 말일 기준으로 내국인만을 집계한 주민등록인구, 5년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조사한 총조사 인구, 그리고 총조사 인구와 출생·사망·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추정된 추계인구로 나뉜다. 인구 현황과 동향에 관한 자료는 특정 연도 사이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및 감소율을 의미하는 인구 성장률 지표를 산출하는데 이용된다.

총조사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는 1949~201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였고(1949년 2,020만 명, 2010년 4,858만 명), 5천만 명을 넘어선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020년 5,182만 명). 이와 같은 총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960~1970년 사이 연 2% 이상으로 높았던 인구 성장률은 1980년대 연 1% 이하로 낮아졌고, 2017년에는 연 0.28%까지 감소하였다(추계인구 기준). 2017년 기준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에 따라 203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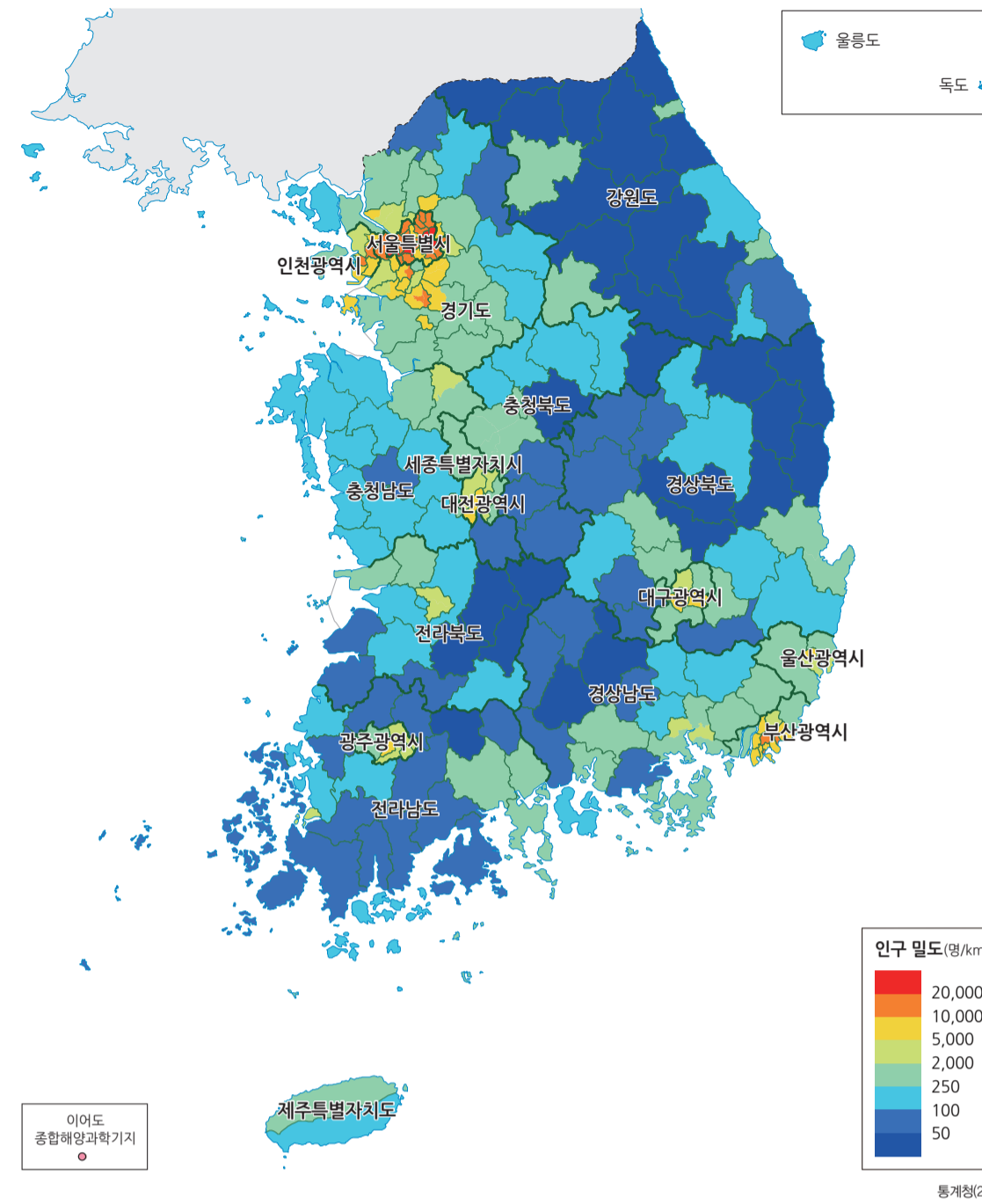
인구 동향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중반을 제외하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1백만 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5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데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2002년 496천 명), 다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약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2020년 272천 명). 전년 대비 출생아 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1970~2015년까지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2020년 사이에는 증가하였다. 출생아 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감한 인구의 자연 증가는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 이르러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마이너스 증가에 접어들었다(출생아 수 약 272천 명, 사망자 수 약 304천 명).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는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읍급 이상 행정 구역 기준 도시화율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많았으나, 1970년에 이르러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와 비슷해졌다. 그러나 도시화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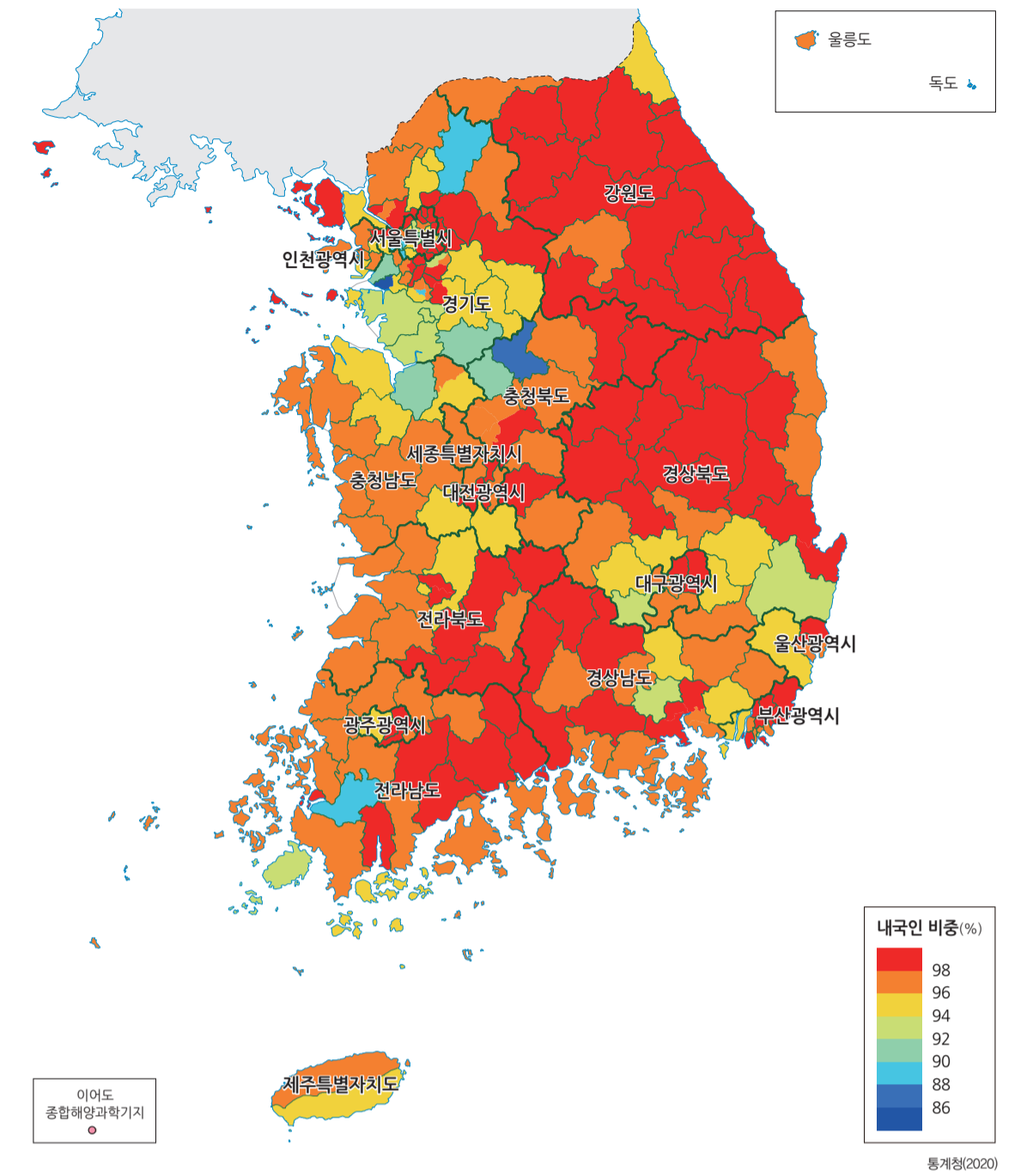


인구 현황

사·군·구 총인구 밀도(2020년)



사·군·구 내국인 구성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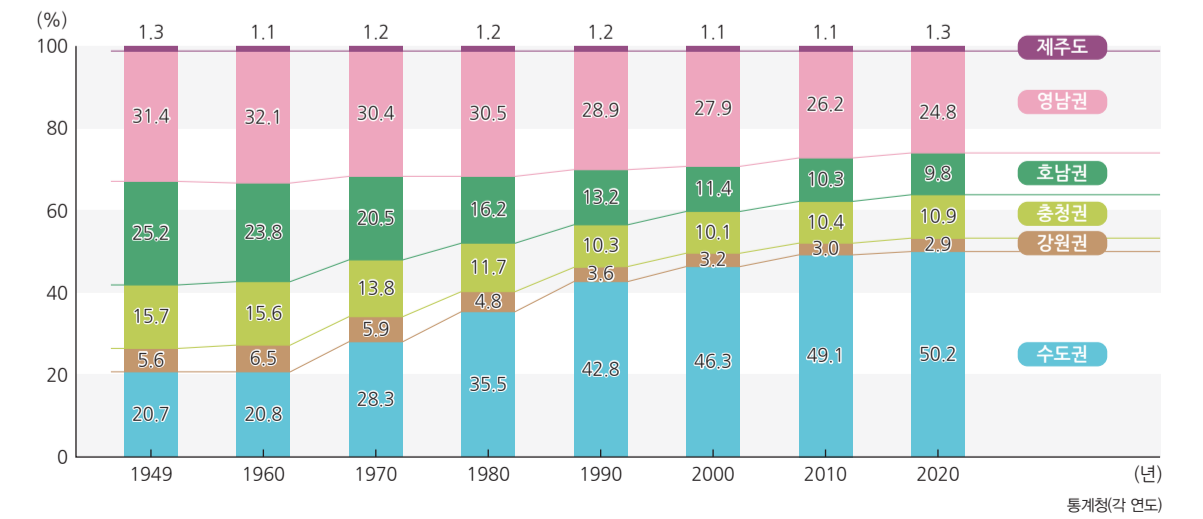
권역별 인구

구분	1949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전국	20,188,641	20,166,756	24,989,241	24,954,290	30,882,386	30,851,984	37,436,315	37,406,815	43,410,899	43,390,374	46,136,101	45,985,289	48,580,293	47,990,761	51,829,136	50,133,493
수도권	4,186,613	4,171,614	5,194,167	5,179,612	8,730,148	8,714,935	13,298,241	13,280,951	18,586,128	18,573,937	21,354,490	21,258,062	23,836,272	23,459,570	26,043,325	24,994,197
서울	1,446,019	1,437,670	2,445,402	2,436,630	5,433,198	5,422,735	8,364,379	8,350,616	10,612,577	10,603,250	9,895,217	9,853,972	9,794,304	9,631,482	9,586,195	9,219,741
경기	2,740,594	2,733,944	2,748,765	2,742,982	3,296,950	3,292,200	4,933,862	4,930,335	6,155,632	6,154,359	8,984,134	8,937,752	11,379,459	11,196,053	13,511,676	12,928,214
인천	-	-	-	-	-	-	-	-	1,817,919	1,816,328	2,475,139	2,466,338	2,662,509	2,632,035	2,945,454	2,846,242
강원권	1,138,785	1,138,435	1,636,767	1,635,743	1,837,015	1,835,947	1,790,954	1,790,226	1,580,430	1,579,859	1,487,011	1,484,536	1,471,513	1,463,650	1,521,763	1,497,109
충청권	3,174,697	3,172,801	3,897,913	3,892,754	4,262,244	4,259,308	4,380,297	4,378,043	4,453,190	4,451,614	4,680,095	4,668,992	5,042,018	4,986,615	5,651,092	5,464,660
충북	1,146,509	1,145,964	1,369,780	1,367,343	1,453,899	1,452,974	1,424,083	1,423,381	1,389,686	1,389,222	1,466,567	1,462,621	1,512,157	1,495,984	1,632,088	1,574,994
충남	2,028,188	2,026,837	2,528,133	2,525,411	2,808,345	2,806,334	2,956,214	2,954,662	2,013,926	2,013,270	1,845,321	1,840,410	2,028,002	2,000,473	2,176,636	2,077,470
대전	-	-	-	-	-	-	-	-	1,049,578	1,049,122	1,368,207	1,365,961	1,501,859	1,490,158	1,488,435	1,465,507
세종	-	-	-	-	-	-	-	-	-	-	-	-	-	-	353,933	346,689
호남권	5,092,927	5,090,442	5,948,265	5,943,190	6,318,921	6,315,803	6,067,425	6,065,497	5,716,402	5,715,039	5,239,922	5,232,474	4,994,464	4,960,936	5,069,146	4,950,971
전북	2,050,485	2,048,951	2,395,224	2,393,108	2,386,381	2,384,696	2,287,689	2,286,720	2,069,960	2,069,378	1,890,669	1,887,239	1,777,220	1,766,044	1,802,766	1,760,400
전남	3,042,442	3,041,491	3,553,041	3,550,082	3,932,540	3,931,107	3,779,736	3,778,777	2,507,439	2,506,944	1,996,456	1,994,287	1,741,499	1,728,749	1,788,807	1,743,571
광주	-	-	-	-	-	-	-	-	1,139,003	1,138,717	1,352,797	1,350,948	1,475,745	1,466,143	1,477,573	1,447,000
영남권	6,341,030	6,338,937	8,030,466	8,021,687	9,375,973	9,368,199	11,436,457	11,429,489	12,560,144	12,555,489	12,861,323	12,828,684	12,704,121	12,591,579	12,872,952	12,582,529
경북	3,206,201	3,205,240	3,848,424	3,845,128	4,476,067	4,472,841	4,954,559	4,952,012	2,860,595	2,860,109	2,724,931	2,716,218	2,600,032	2,575,370	2,644,757	2,570,210
대구	-	-	-	-	-	-	-	-	2,229,040	2,227,979	2,480,578	2,473,990	2,446,418	2,431,774	2,410,700	2,373,302
경남	3,134,829	3,133,697	4,182,042	4,176,559	3,057,647	3,056,612	3,322,132	3,320,546	3,672,396	3,671,509	2,978,502	2,970,929	3,160,154	3,119,571	3,333,056	3,236,387
부산	-	-	-	-	1,842,259	1,838,746	3,159,766	3,156,931	3,798,113	3,795,892	3,662,884	3,655,437	3,414,950	3,393,191	3,349,016	3,294,102
울산	-	-	-	-	-	-	-	-	-	-	1,014,428	1,012,110	1,082,567	1,071,673	1,135,423	1,108,528
제주도	254,589	254,527	281,663	281,304	358,085	357,792	462,941	462,609	514,605	514,436	513,260	512,541	531,905	528,411	670,858	644,027

2020년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는 1949년보다 약 2.6배 많아졌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 수도권, 호남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수도권 인구가 호남권과 영남권 인구보다 많아졌으며,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충청권과 제주도의 총인구 비중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호남권·영남권·강원권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1949~2020년 사이 호남권의 인구 비중은 25.2%에서 9.8%로 낮아지며 다른 권역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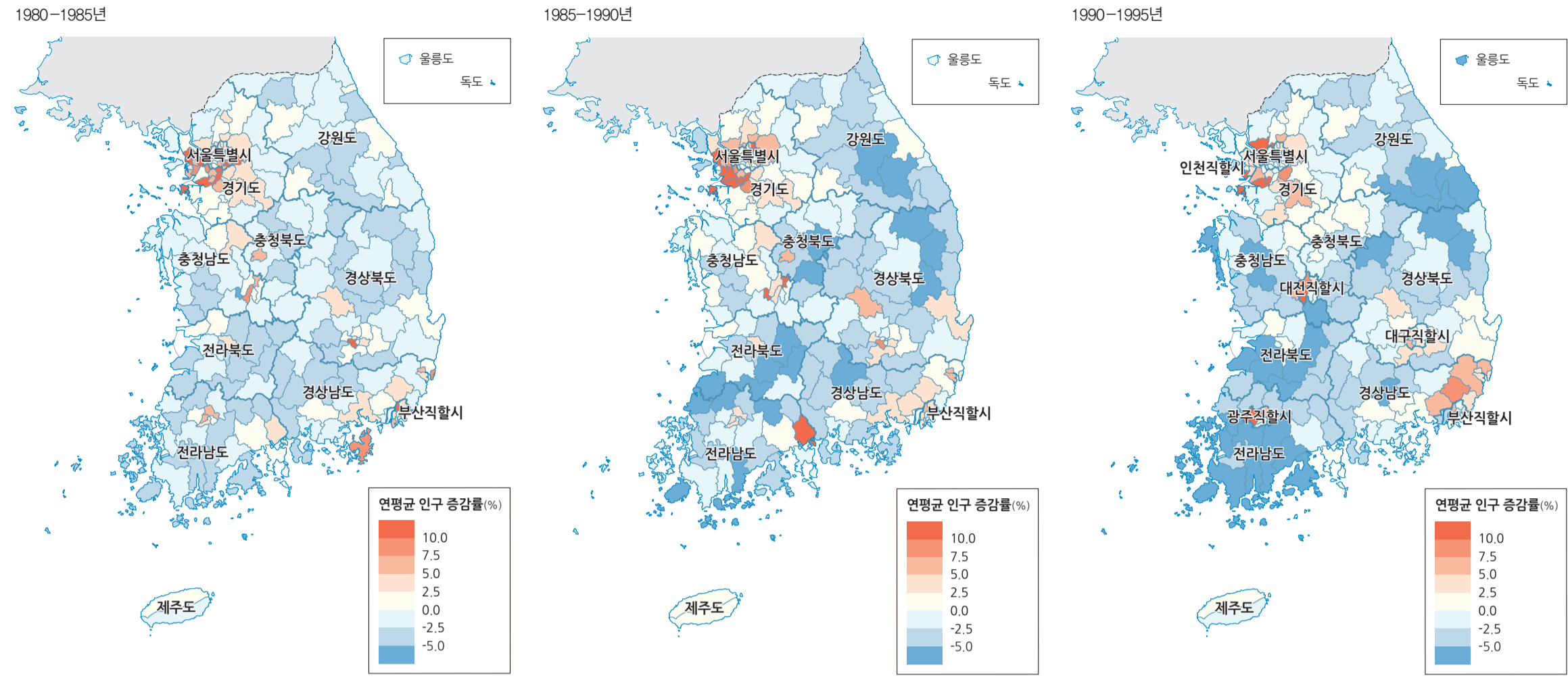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내국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9~2000년 사이에 약 99% 이상이었으나, 2000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2010년 98.9%, 2020년 96.7%). 각 권역의 내국인 인구 비중도 전국과 같이 낮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제주도의 내국인 인구 비중은 약 96.0%로서 다른 권역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강원도의 경우 내국인 인구 비중이 약 98.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총인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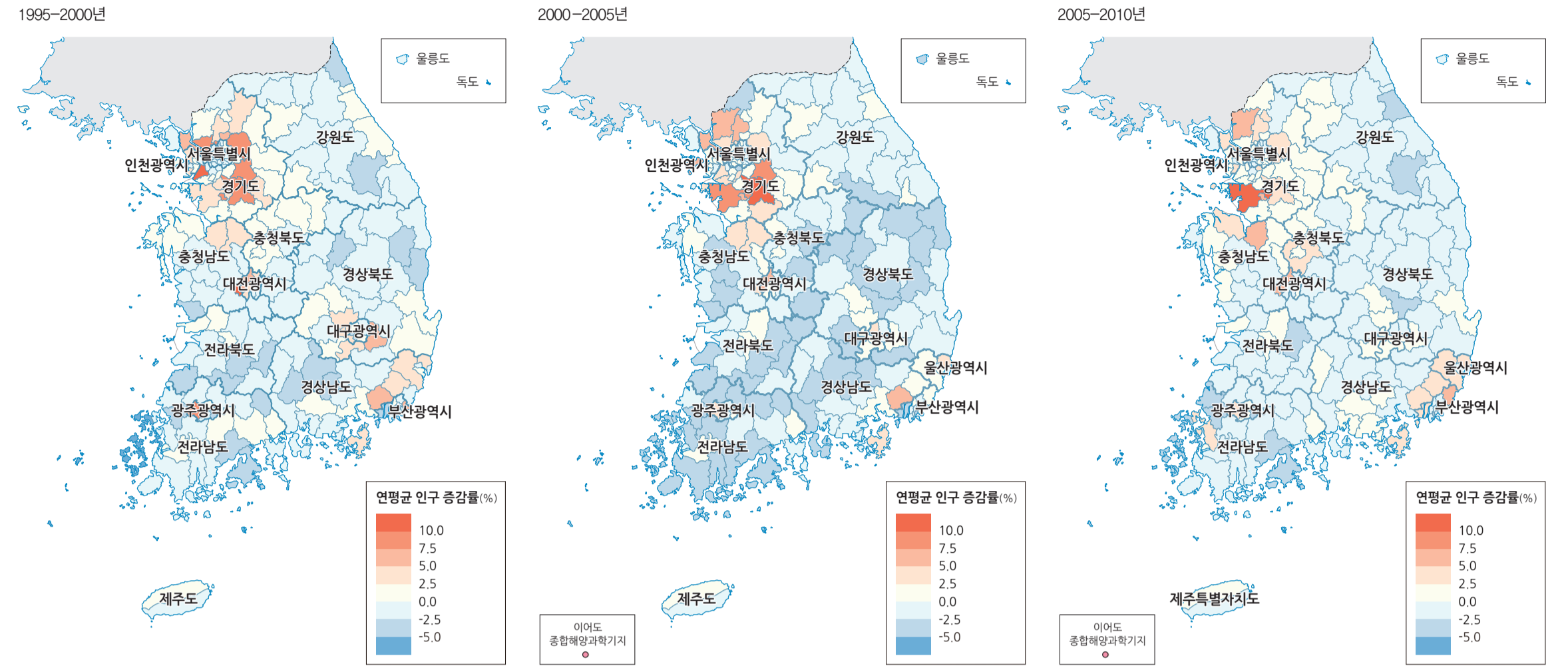


인구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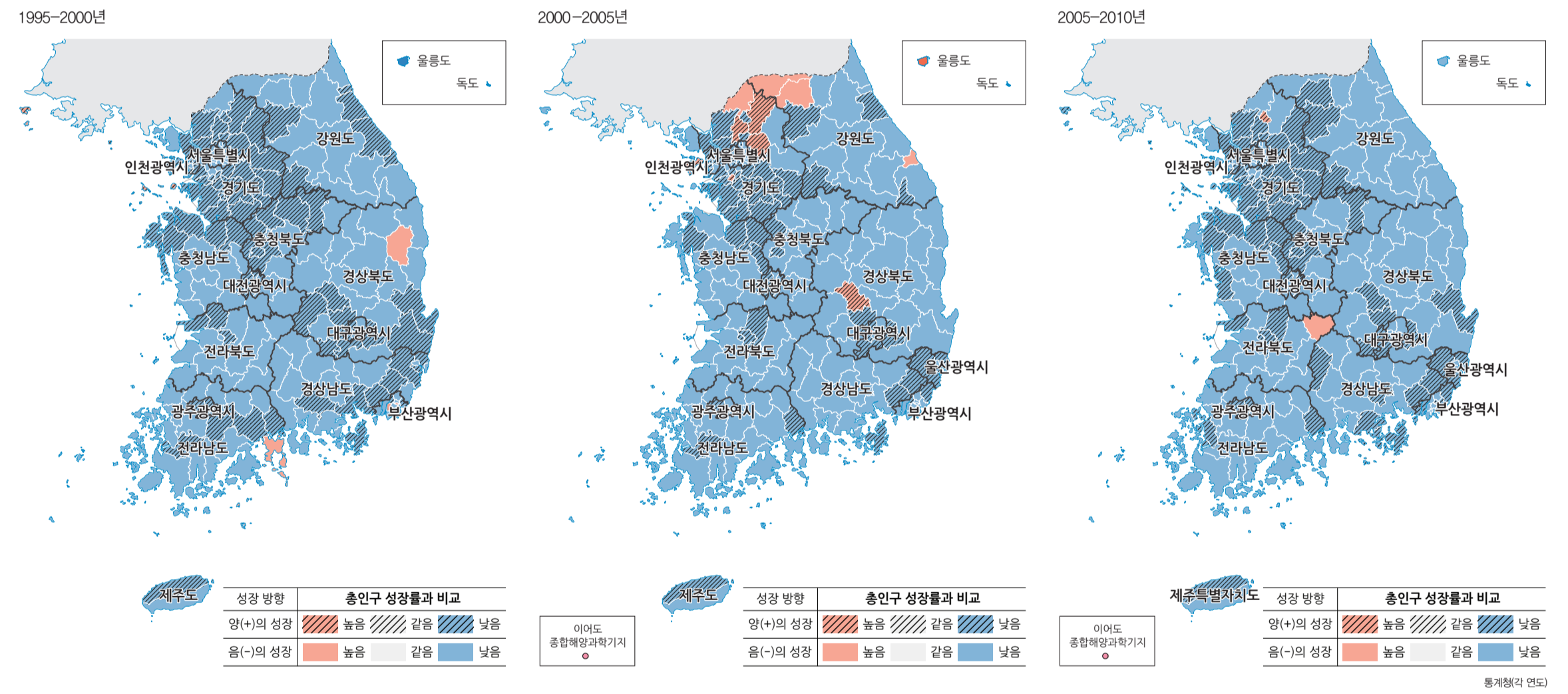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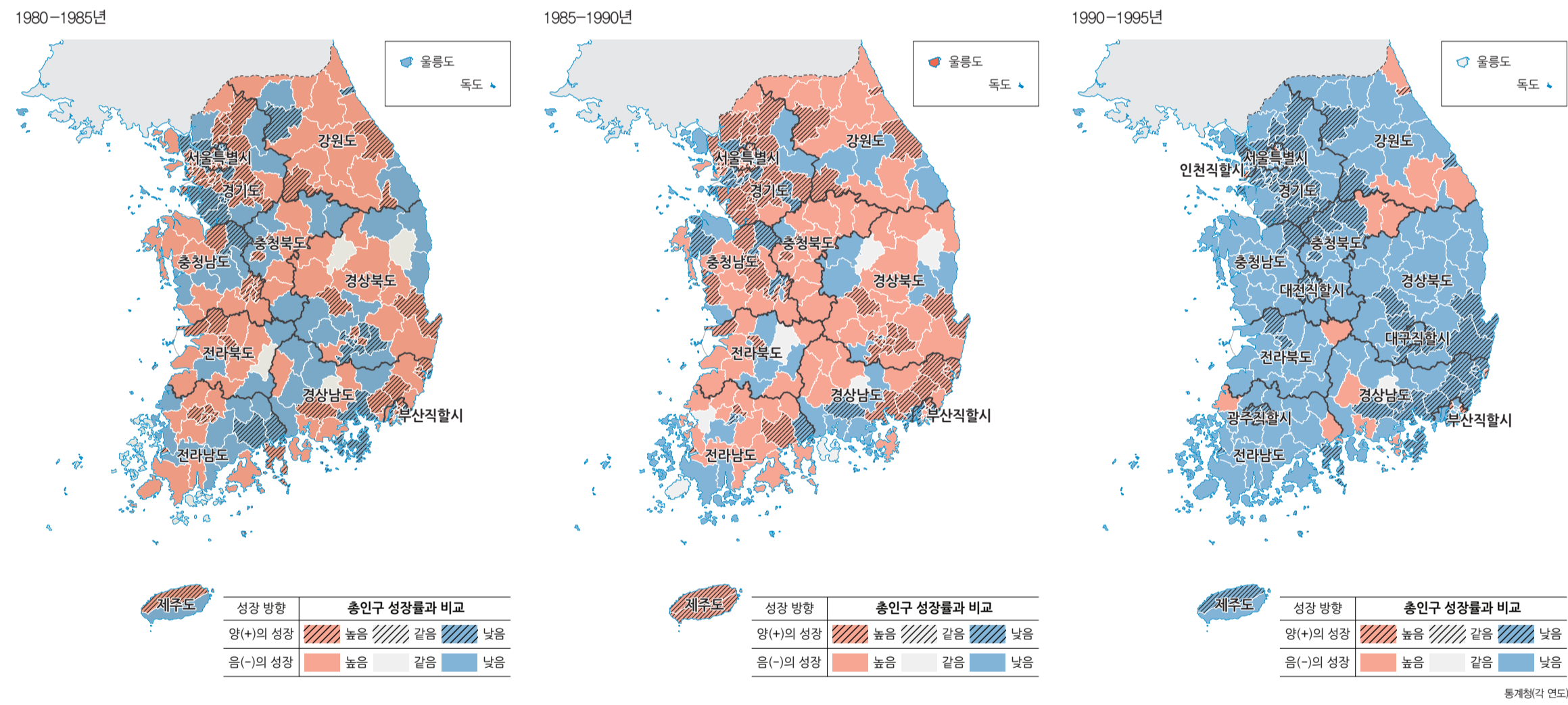
총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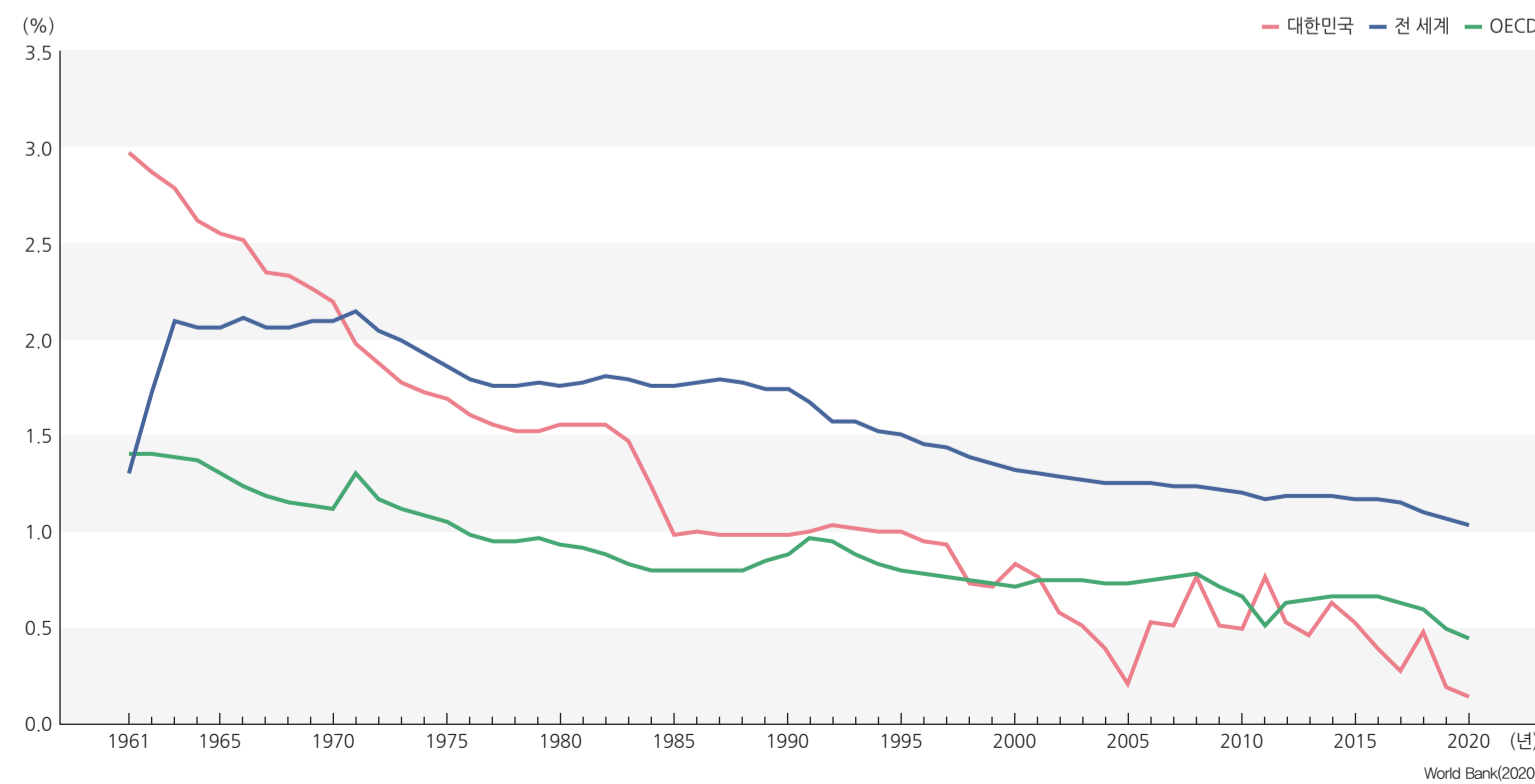
인구 성장



내국인 인구 성장



대한민국, 전 세계, OECD 연평균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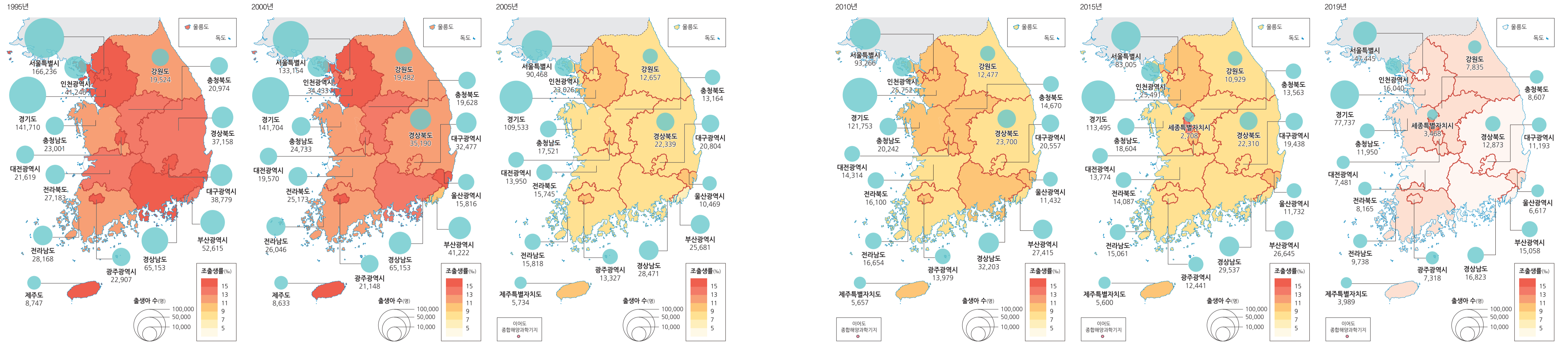


1960년대까지 2~3%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총인구 기준)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가파르게 낮아졌으며, 최근 까지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2020년 0.14%). 5년 단위 연평균 총인구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1980-1985년과 2005-2010년 사이 1.01% 포인트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충청권과 강원권 총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증가하였으나, 다른 권역에서는 이와 반대의 인구 성장이 나타났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80-2005년 사이 총인구의 변화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2010년 사이에는 내국인의 변화율이 총인구보다 더 큰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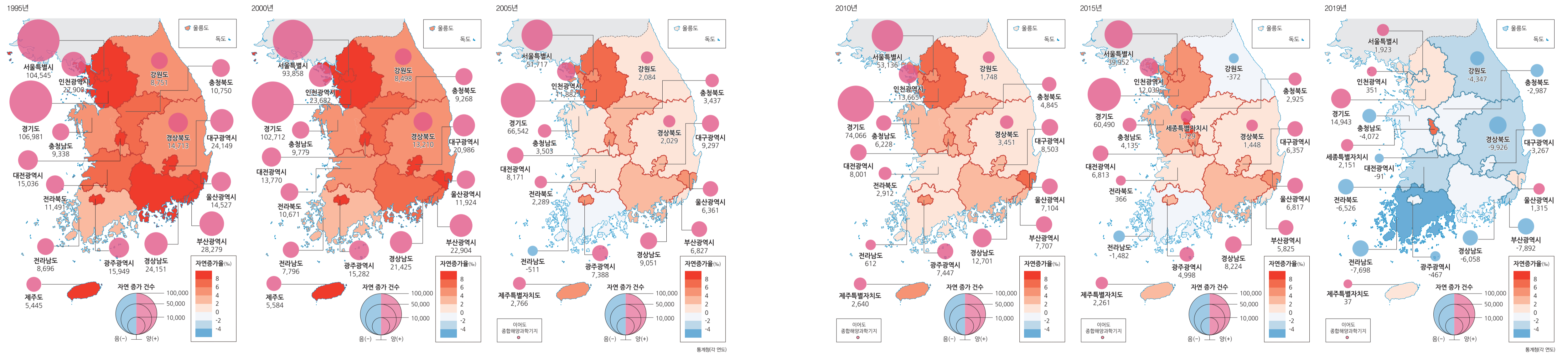
권역별 총인구와 내국인 인구 증감률

구분	1980-1985년		1985-1990년		1990-1995년		1995-2000년		2000-2005년		2005-2010년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총인구	내국인
전국	1.55	1.55	1.41	1.42	0.54	0.53	0.67	0.63	0.49	0.45	0.54	0.40
수도권	3.47	3.48	3.22	3.23	1.65	1.64	1.12	1.06	1.28	1.24	0.92	0.73
서울	2.84	2.84	1.92	1.93	-0.73	-0.74	-0.67	-0.72	-0.15	-0.19	-0.05	-0.27
경기	4.57	4.57	5.25	5.25	4.69	4.66	3.22	3.14	2.96	2.92	1.77	1.59
인천	4.32	4.33	4.61	4.62	3.66	3.64	1.40	1.36	0.45	0.41	1.01	0.89
강원권	-0.75	-0.75	-1.75	-1.75	-1.50	-1.51	0.28	0.26	-0.30	-0.32	0.09	0.04
충청권	0.05	0.06	0.28	0.28	-0.08	-0.09	1.07	1.04	0.48	0.44	1.01	0.88
충북	-0.47	-0.47	-0.02	-0.02	0.10	0.09	0.98	0.94	-0.08	-0.12	0.70	0.57
충남	-0.89	-0.89	-0.43	-0.43	-2.62	-2.63	0.87	0.84	0.47	0.42	1.41	1.25
대전	3.19	3.20	2.14	2.14	3.85	3.84	1.46	1.44	1.06	1.04	0.80	0.70
호남권	-0.39	-0.39	-0.80	-0.80	-1.79	-1.80	0.05	0.03	-0.85	-0.88	-0.11	-0.19
전북	-0.76	-0.76	-1.24	-1.24	-1.69	-1.70	-0.12	-0.14	-1.16	-1.18	-0.08	-0.14
전남	-1.54	-1.55	-1.52	-1.52	-3.86	-3.87	-0.69	-0.71	-1.85	-1.88	-0.88	-0.98
경주	3.93	3.93	1.77	1.77	1.98	1.98	1.46	1.44	0.94	0.91	0.80	0.73
영남권	1.08	1.08	0.79	0.80	0.36	0.34	0.12	0.09	-0.25	-0.28	0.00	-0.09
경북	-1.14	-1.13	-1.15	-1.15	-0.67	-0.69	0.36	0.32	-0.88	-0.92	-0.06	-0.15
대구	2.60	2.60	1.92	1.93	1.06	1.04	0.25	0.23	-0.13	-0.15	-0.15	-0.20
경남	0.56	0.56	0.31	0.32	0.48	0.46	0.69	0.66	0.52	0.47	0.67	0.51
부산	2.03	2.03	1.39	1.40	-0.21	-0.23	-0.81	-0.83	-0.78	-0.80	-0.63	-0.69
울산	4.15	4.14	3.69	3.70	3.67	3.66	0.95	0.92	0.67	0.64	0.63	0.51
제주도	1.08	1.08	1.04	1.04	-0.36	-0.37	0.31	0.29	0.71	0.70	0.00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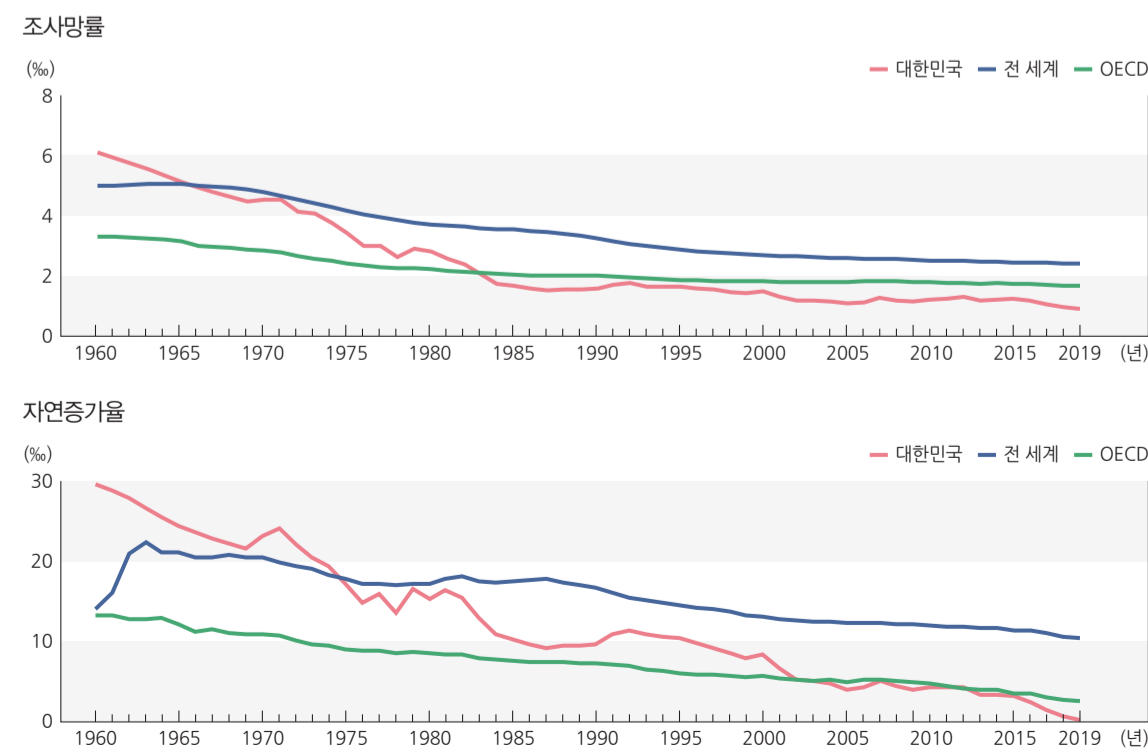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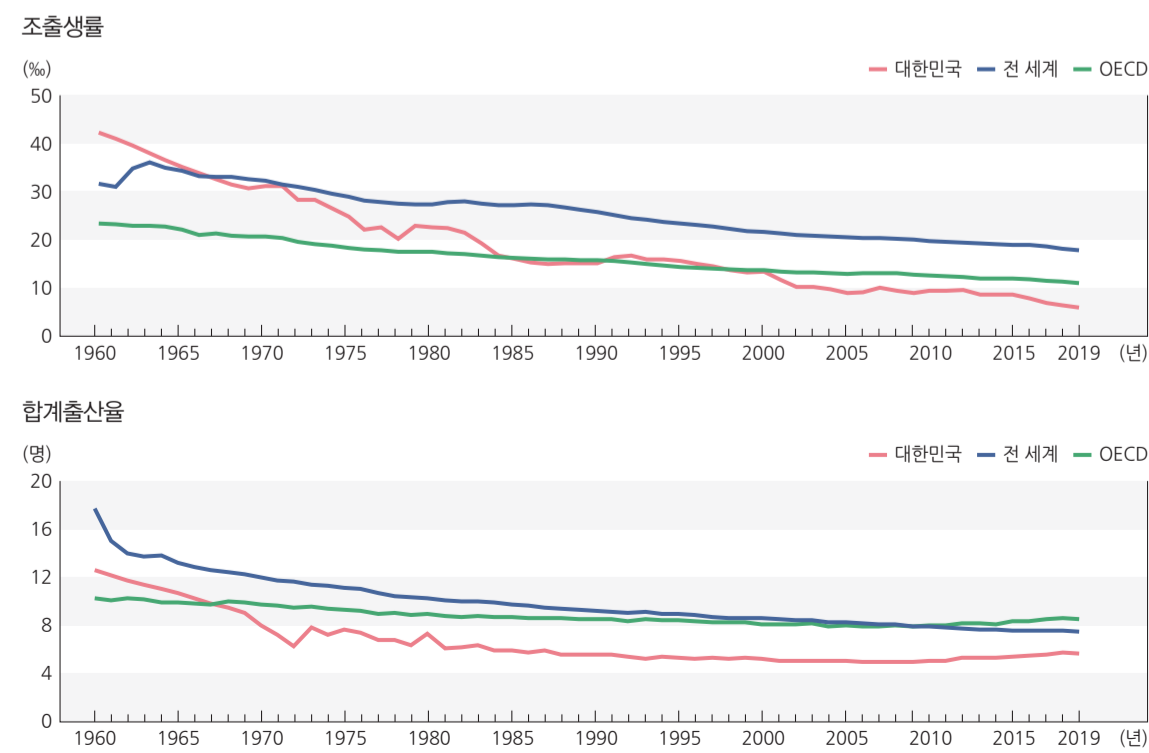
사도 출생



사도 자연 증가



대한민국, OECD, 전 세계 출생과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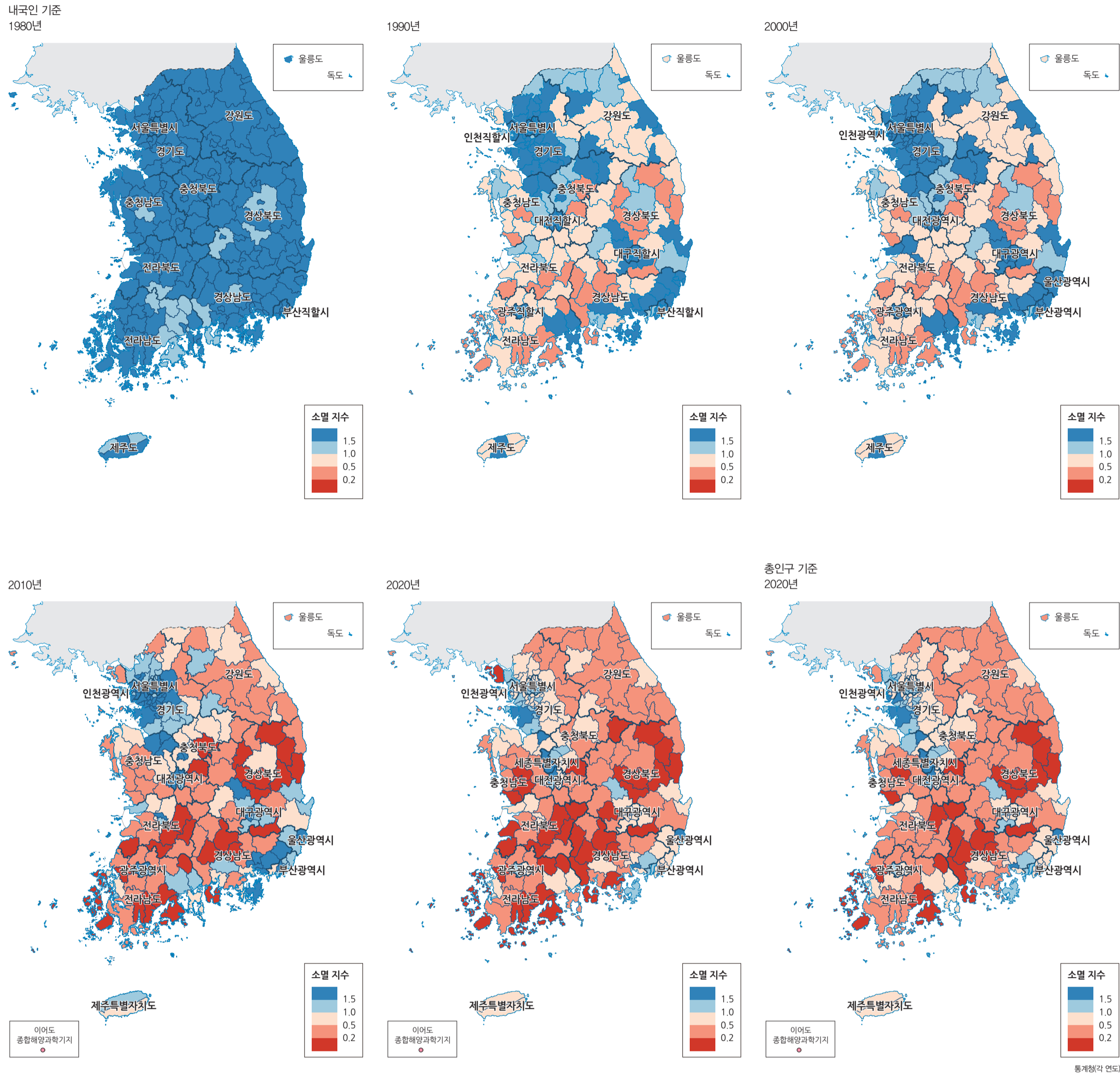


우리나라 인구는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 전 세계 보다 높은 출산율이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1960년 합계 출산율 6명). 1960-1980년대에 걸쳐 시행된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에 따라 출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9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이하로 낮아졌고, 조출생률도 1960년 대비 1/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조사망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1960-1970년대까지 비교적 파르게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증가는 전 세계와 OECD보다 낮아지며 인구 규모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2019년 기준).

권역별 출생, 사망과 자연 증가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전국	655.5	240.4	415.1	649.7	241.6	408.1	715.0	242.8	472.2	640.1	248.7	391.3
수도권	279.1	66.3	212.8	318.6	75.0	243.6	349.2	82.3	266.8	309.3	89.0	220.3
강원권	26.0	12.7	13.3	19.0	11.7	7.3	19.5	11.3	8.2	19.5	11.0	8.5
충청권	64.6	32.3	32.3	54.4	31.5	23.0	65.6	31.1	34.5	63.9	31.1	32.8
호남권	86.6	51.1	35.4	68.1	46.6	21.5	78.3	41.0	37.2	72.4	38.6	33.7
영남권	192.1	75.2	116.9	182.8	73.9	108.9	193.7	74.2	119.5	166.4	75.9	90.4
제주도	7.1	2.7	4.4	6.7	2.9	3.8	8.7	2.8	6.0	8.6	3.0	5.6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구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 증가
전국	438.7	245.9	192.8	470.2	255.4	214.8	438.4	275.9	162.5	302.7	295.1	7.6
수도권	223.0	92.9	130.1	240.8	99.9	140.9	222.0	109.5	112.5	155.4	119.5	35.9
강원권	12.7	10.6	2.1	12.5	10.7	1.7	10.9	11.3	-0.4	8.3	11.9	-3.6
충청권	44.6	29.5	15.1	49.2	30.2	19.1	48.6	33.0	15.6	34.8	35.7	-0.9
호남권	44.9	35.7	9.2	46.7	35.8	11.0	41.6	37.7	3.9	28.2	38.9	-10.8
영남권	107.8	74.2	33.6	115.3	75.8	39.5	109.7	81.0	28.7	71.5	85.1	-13.5
제주도	5.7	3.0	2.8	5.7	3.0	2.6	5.6	3.3	2.3	4.5	4.0	0.5

시군구 인구 소멸 지수



권역별 인구 소멸 위험과 고위험 시·군·구 수와 구성비(2020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국	234	29	12.4	0	0.0	234	56	23.9	3	1.3	251	55	21.9	27	10.8	252	65	25.8	18	7.1	250	70	28.0	38	15.2
수도권	66	0	0.0	0	0.0	66	2	3.6	0	0.0	79	5	9.1	0	0.0	79	5	7.7	0	0.0	77	8	11.4	1	2.6
서울	25	0	0.0	0	0.0	25	0	0.0	0	0.0	25	0	0.0	0	0.0	25	0	0.0	0	0.0	25	0	0.0	0	0.0
인천	10	0	0.0	0	0.0	10	2	3.6	0	0.0	10	2	3.6	0	0.0	10	2	3.1	0	0.0	10	2	2.9	1	2.6
경기	31	0	0.0	0	0.0	31	0	0.0	0	0.0	44	3	5.5	0	0.0	44	3	4.6	0	0.0	42	6	8.6	0	0.0
강원권	18	0	0.0	0	0.0	18	2	3.6	0	0.0	18	9	16.4	0	0.0	18	9	13.8	0	0.0	18	15	21.4	0	0.0
충청권	33	4	13.8	0	0.0	33	9	16.1	0	0.0	35	12	21.8	2	7.4	36	14	21.5	0	0.0	36	12	17.1	5	13.2
충북	12	2	6.9	0	0.0	12	4	7.1	0	0.0	13	3	5.5	2	7.4	14	5	7.7	0	0.0	14	5	7.1	2	5.3
충남	16	2	6.9	0	0.0	16	5	8.9	0	0.0	17	9	16.4	0	0.0	16	9	13.8	0	0.0	16	7	10.0	3	7.9
대전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세종	-	-	-	-	-	-	-	-	-	-	-	-	-	-	-	1	0	0.0	0	0.0	1	0	0.0	0	0.0
호남권	41	12	41.4	0	0.0	41	22	39.3	2	66.7	42	14	25.5	13	48.1	42	21	32.3	6	33.3	42	12	17.1	17	44.7
전북	14	4	13.8	0	0.0	14	7	12.5	1	33.3	15	5	9.1	5	18.5	15	9	13.8	1	5.6	15	4	5.7	7	18.4
전남	22	8	27.6	0	0.0	22	15	26.8	1	33.3	22	9	16.4	8	29.6	22	12	18.5	5	27.8	22	8	11.4	10	26.3
광주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영남권	72	13	44.8	0	0.0	72	21	37.5	1	33.3	75	15	27.3	12	44.4	75	16	24.6	12	66.7	75	23	32.9	15	39.5
경북	23	7	24.1	0	0.0	23	12	21.4	1	33.3	24	8	14.5	8	29.6	24	8	12.3	8	44.4	24	11	15.7	8	21.1
대구	8	0	0.0	0	0.0	8	0	0.0	0	0.0	8	0	0.0	0	0.0	8	0	0.0	0	0.0	8	1	1.4	0	0.0
경남	20	6	20.7	0	0.0	20	9	16.1	0	0.0	22	7	12.7	4	14.8	22	7	10.8	4	22.2	22	7	10.0	7	18.4
부산	16	0	0.0	0	0.0	16	0	0.0	0	0.0	16	0	0.0	0	0.0	16	1	1.5	0	0.0	16	4	5.7	0	0.0
울산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5	0	0.0	0	0.0
제주도	4	0	0.0	0	0.0	4	0	0.0	0	0.0	4	0	0.0	0	0.0	4	0	0.0	0	0.0	4	0	0.0	0	0.0

*통계청 각 연도의 인구와 지방 소멸 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상위 시·군·구(2020년)

순위	시·도	시·군·구	지수
1	경상북도	의성군	0.128
2	경상북도	고령군	0.128
3	전라남도	고흥군	0.129
4	경상남도	합천군	0.140
5	전라남도	신안군	0.141
6	경상남도	남해군	0.146
7	경상북도	봉화군	0.147
8	경상북도	청송군	0.149
9	경상북도	영양군	0.155
10	전라남도	보성군	0.156
11	경상북도	영덕군	0.158
12	경상남도	하동군	0.164
13	충청남도	서천군	0.166
14	경상남도	산청군	0.167
15	전라남도	함평군	0.177
16	전라남도	구례군	0.178
17	충청북도	보은군	0.181
18	경상북도	청도군	0.182
19	경상남도	함양군	0.186
20	경상남도	의령군	0.188
21	충청남도	황양군	0.195
22	전라남도	진도군	0.195
23	전라북도	진안군	0.195
24	전라북도	무주군	0.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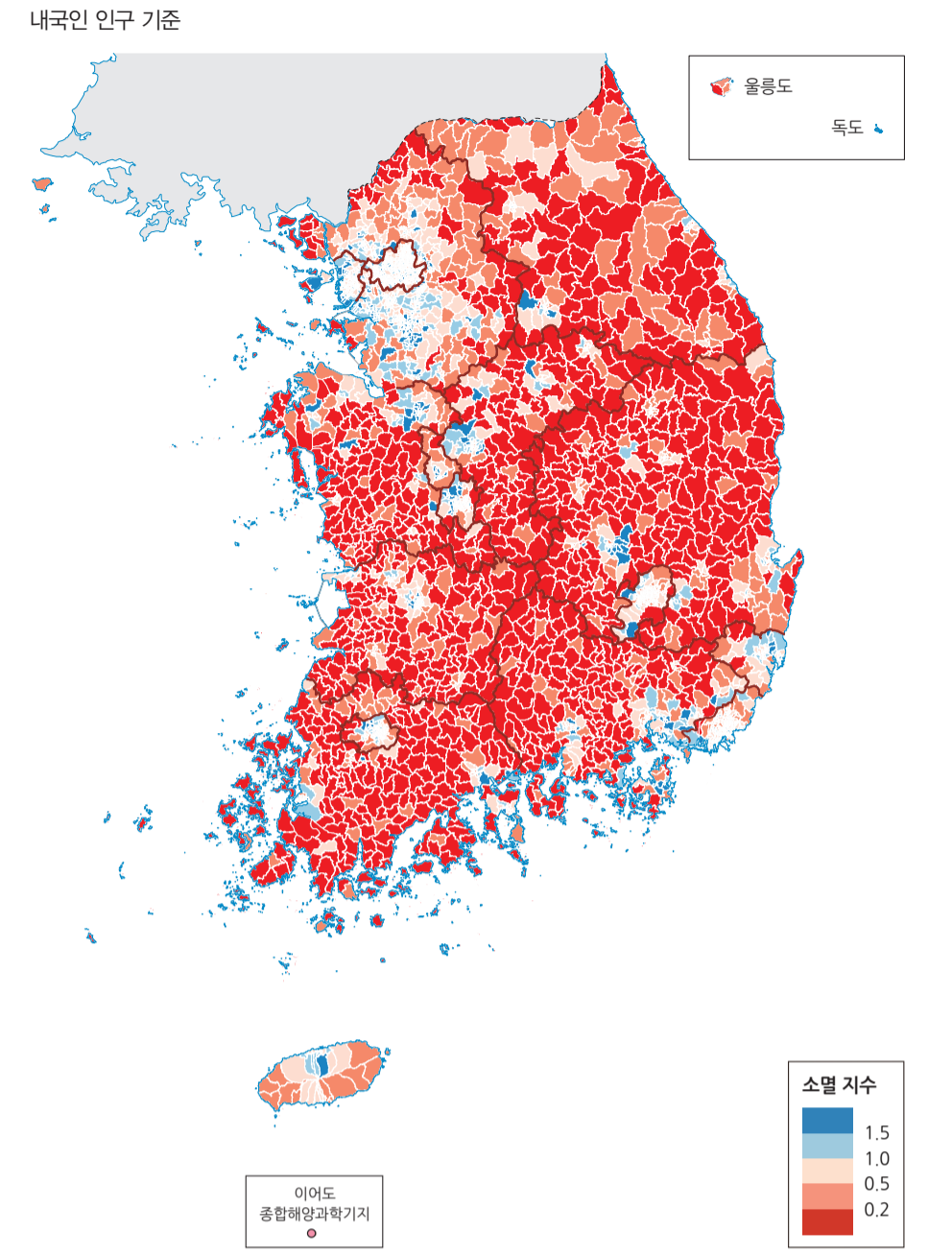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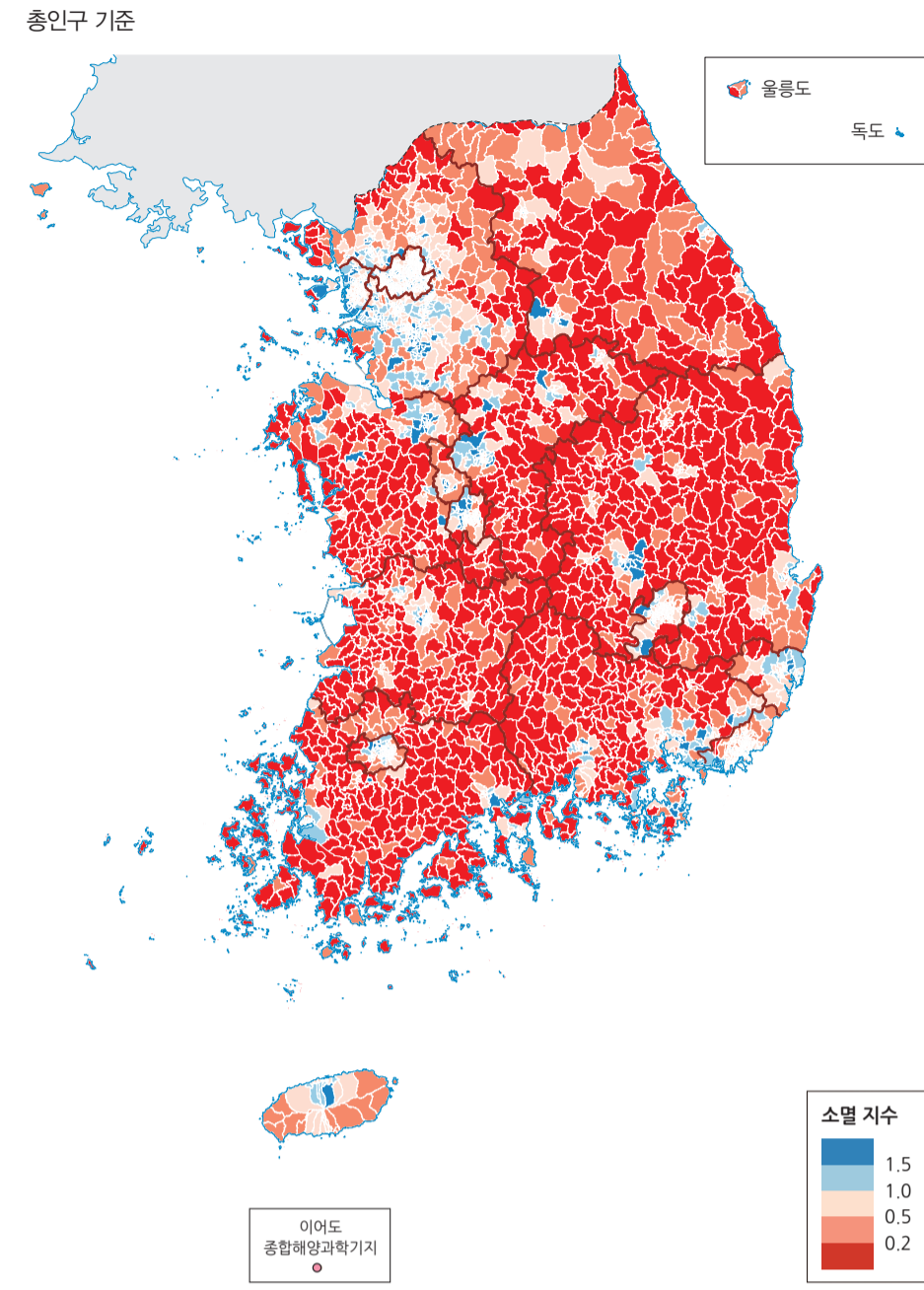
순위	시·도	시·군·구	지수
1	경상북도	군위군	0.115
2	전라남도	고흥군	0.117
3	경상북도	의성군	0.118
4	전라남도	신안군	0.125
5	경상남도	합천군	0.127
6	경상북도	봉화군	0.130
7	경상북도	영양군	0.131
8	경상북도	청송군	0.135
9	전라남도	보성군	0.139
10	경상남도	남해군	0.139
11	경상남도	산청군	0.140
12	경상북도	청도군	0.143
13	경상북도	영덕군	0.144
14	경상남도	하동군	0.147
15	충청남도	서천군	0.148
16	전라남도	함평군	0.152
17	경상남도	의령군	0.161
18	충청북도	보은군	0.164
19	전라남도	구례군	0.165
20	충청남도	청양군	0.169
21	전라남도	진도군	0.174
22	경상남도	함양군	0.174
23	전라북도	진안군	0.175
24	전라북도	광수군	0.180
25	전라북도	무주군	0.181
26	전라북도	고창군	0.181
27	충청남도	부여군	0.185
28	경상북도	성주군	0.187
29	전라남도	강진군	0.188
30	전라남도	원도군	0.189
31	전라북도	순창군	0.191
32	전라북도	임실군	0.191
33	충청북도	단양군	0.191
34	전라남도	곡성군	0.192
35	전라남도	장흥군	0.193
36	인천광역시	강화군	0.195
37	전라북도	부안군	0.196
38	경상남도	고성군	0.196

권역별 인구 소멸 위험과 고위험 동·읍·면 수와 비율(2020년)

구분	총인구			내국인			구분	총인구			내국인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체(개)	위험	고위험
전국	3481	696	20.0	933	26.8	29.1	전국	3481	668	19.2	1013	29.1	
수도권	1122	115	16.5	34	1.0	1.5	수도권	1122	116	17.4	51	1.5	
서울	424	7	1.0	0	0.0	0.0	서울	424	9	1.3	0	0.0	
인천	154	24	3.4	14	0.4	0.4	인천	154	24	3.6	14	0.4	
경기	544	84	12.1	20	0.6	1.1	경기	544	83	12.4	37	1.1	
강원권	187	69	9.9	65	1.9	2.1	강원권	187	63	9.4	74	2.1	
충청권	458	87	12.5	181	5.2	5.5	충청권	458	84	12.6	192	5.5	
충북	153	29	27.0	70	2.0	2.1	충북	153	27	27.0	73	2.1	
충남	207	42	39.0	107	3.1	3.3	충남	207	39	39.0	115	3.3	
대전	79	10	12.0	3	0.1	0.1	대전	79	12	12.0	3	0.1	
세종	19	6	6	1	0.0	0.0	세종	19	6	6	1	0.0	
호남권	635	137	19.7	321	9.2	9.7	호남권	635	126	18.9	336	9.0	
전북	243	64	9.2	127	3.6	3.8	전북	243	59	8.8	132	3.8	
전남	297	59	8.5	190	5.5	5.7	전남	297	52	7.8	200	5.7	
광주	95	14	2.0	4	0.1	0.1	광주	95	15	2.2	4	0.1	
영남권	1036	273	39.2	331	9.5	10.3	영남권	1036	261	39.1	359	10.3	
경북	332	80	11.5	184	5.3	5.6	경북	332	72	10.8	195	5.6	
대구	138	37	5.3	2	0.1	0.1	대구	138	39	5.8	2	0.1	
경남	305	70	10.1	141	4.1	4.5	경남	305	60	9.0	155	4.5	
부산	205	78	11.2	1	0.0	0.0	부산	205	81	12.1	4	0.1	
울산	56	8	1.1	3	0.1	0.1	울산	56	9	1.3	3	0.1	
제주도	43	15	2.2	1	0.0	0.0	제주도	43	18	2.7	1	0.0	

*통계청 각 연도의 인구와 지방 소멸 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동·읍·면 인구 소멸 지수(2020년)



지속적인 저출산과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지역의 소멸에 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 인구와 노령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지방 소멸 위험지수(지방소멸 위험지수 = 20세~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인구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 위험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값이 0.5 이상 ~1.0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주의' 지역을, 0.2 이상 ~ 0.5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0.2 미만인 경우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을 의미한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980년과 1990년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이 없었으나, 2000~2020년 사이 이들 지역의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위험 지역은 약 2.4배 증가하였고(2000년 29개, 2020년 70개), 2010~2020년 사이 고위험 지역은 1.4배 늘어났다(2010년 27개, 2020년 38개).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 기준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달랐다. 즉, 총인구 기준 소멸위험 시·군·구는 내국인 대상 위험 지역보다 9개가 많았으나, 고위험 시·군·구는 14개 적었다.

2000~2020년 사이 내국인 인구 기준 소멸 위험 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주로 호남권과 영남권이 다른 권역보다 대체로 많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 32.8%가 영남권에 속한 시·군·구였고, 호남권과 충청권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각각 17.1%를 차지하였다. 한편, 고위험 지역 중 호남권과 영남권 시·군·구는 각각 44.7%와 39.5%를 차지한다. 이는 이들 권역의 인구 소멸 위험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20년 현재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전북, 전남, 경북과 경남에서 더 많다. 전체 시·군·구 중 경상북도 의성군과 군위군 및 전라남도 고흥군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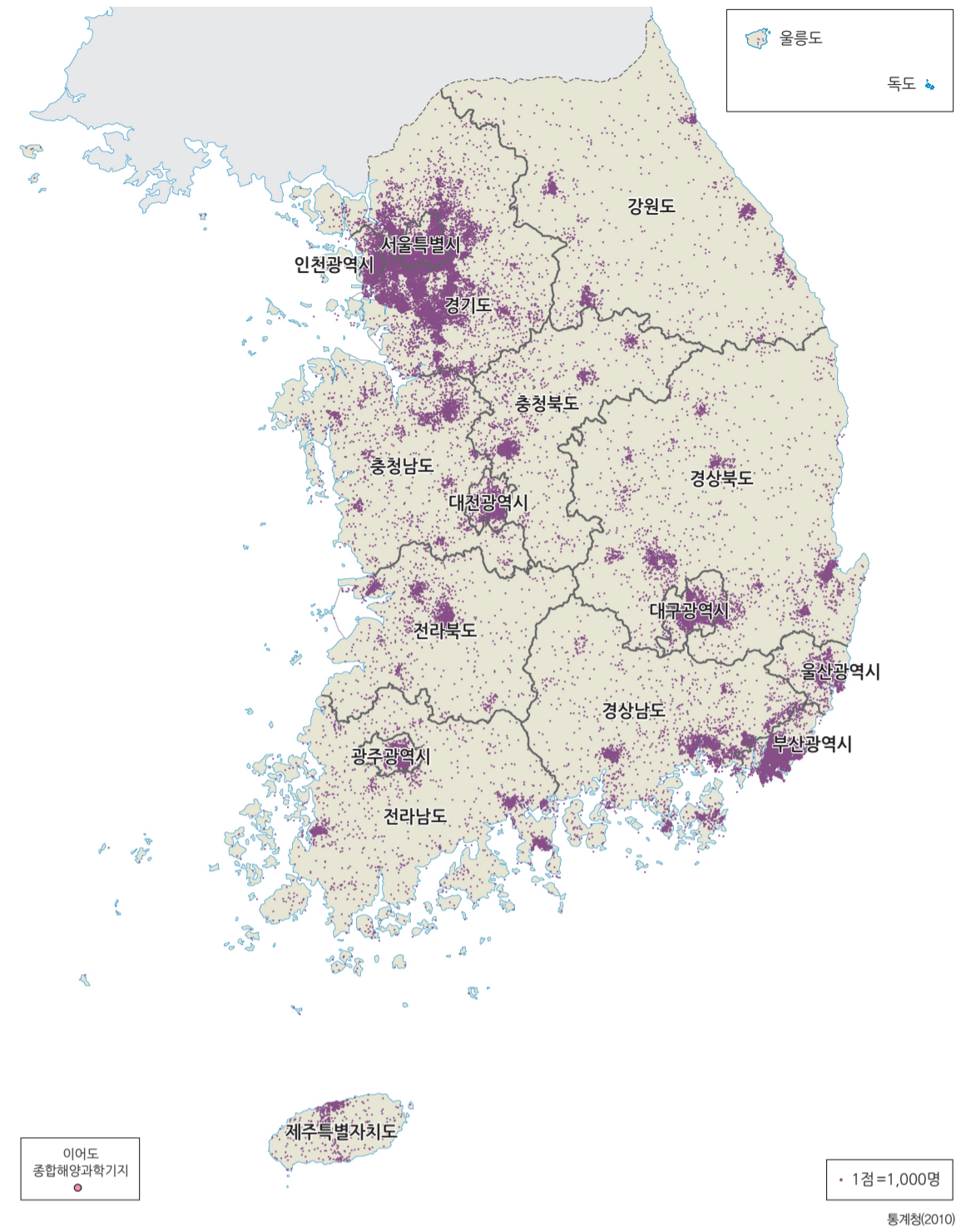
2020년 현재 경기도 파주시 전서면,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과 임남면 및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내국인 인구만을 고려한 동·읍·면의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고루 나타난다. 위험 지역의 수는 영남권과 호남권 순으로 많게 나타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위험 지역이 나타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도 호남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위험 지역도 위험 지역과 같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그 수가 많다.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를 고려한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권역별·시·도별 위험 지역과 고위험 지역 수는 내국인만을 고려한 수와 비슷하나 그 비중은 대체로 낮다. 동·읍·면의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대체로 먼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내국인만을 고려하면 경상북도 군위군 남후면에서 인구 소멸 지수가 가장 낮았고, 외국인을 포함하면 경상북도 안동시 상성면이 가장 낮았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상위 동·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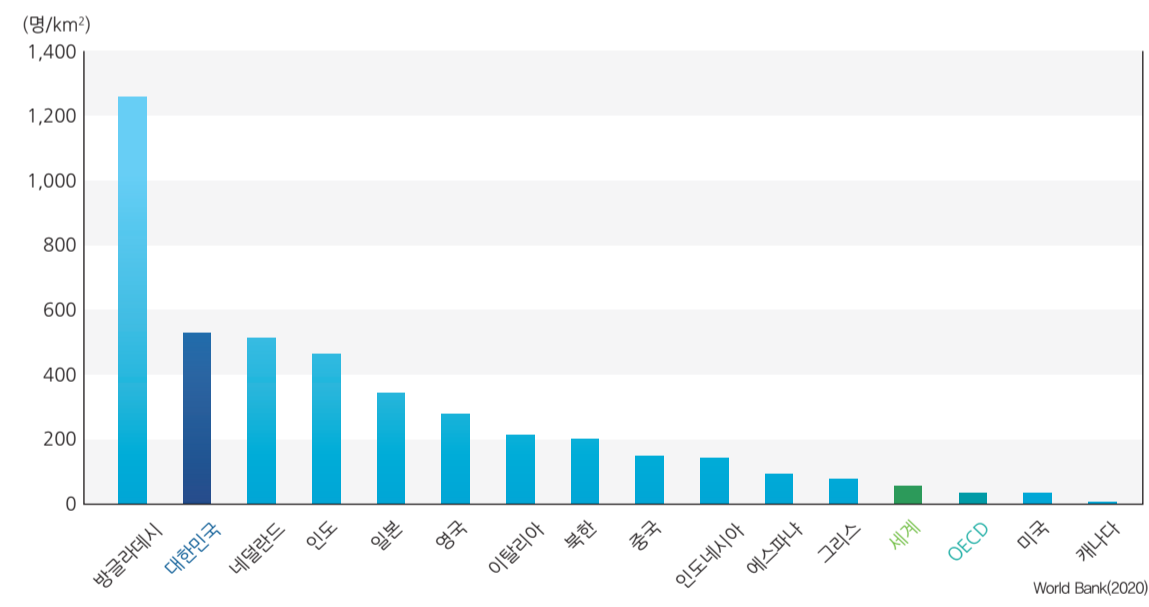
순위	총인구					내국인				
	시·도	시·군·구	동·읍·면	소멸 지수	비율	순위	시·도	시		

인구 불균형

인구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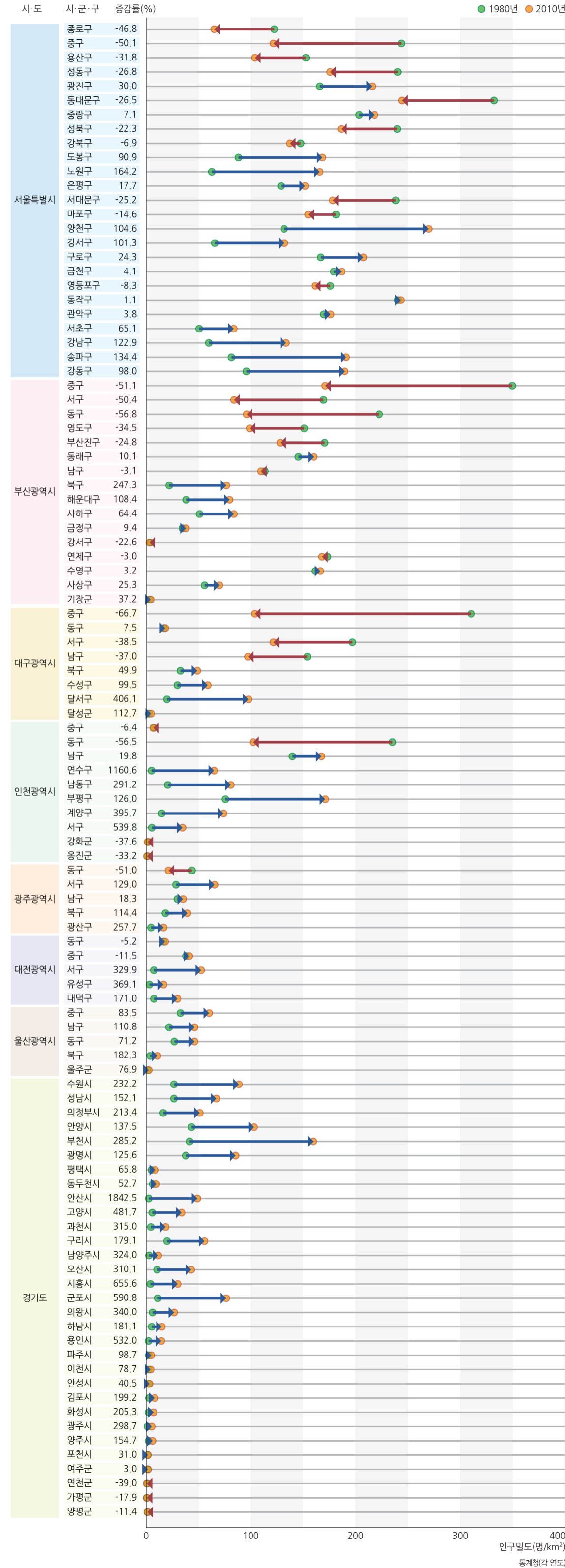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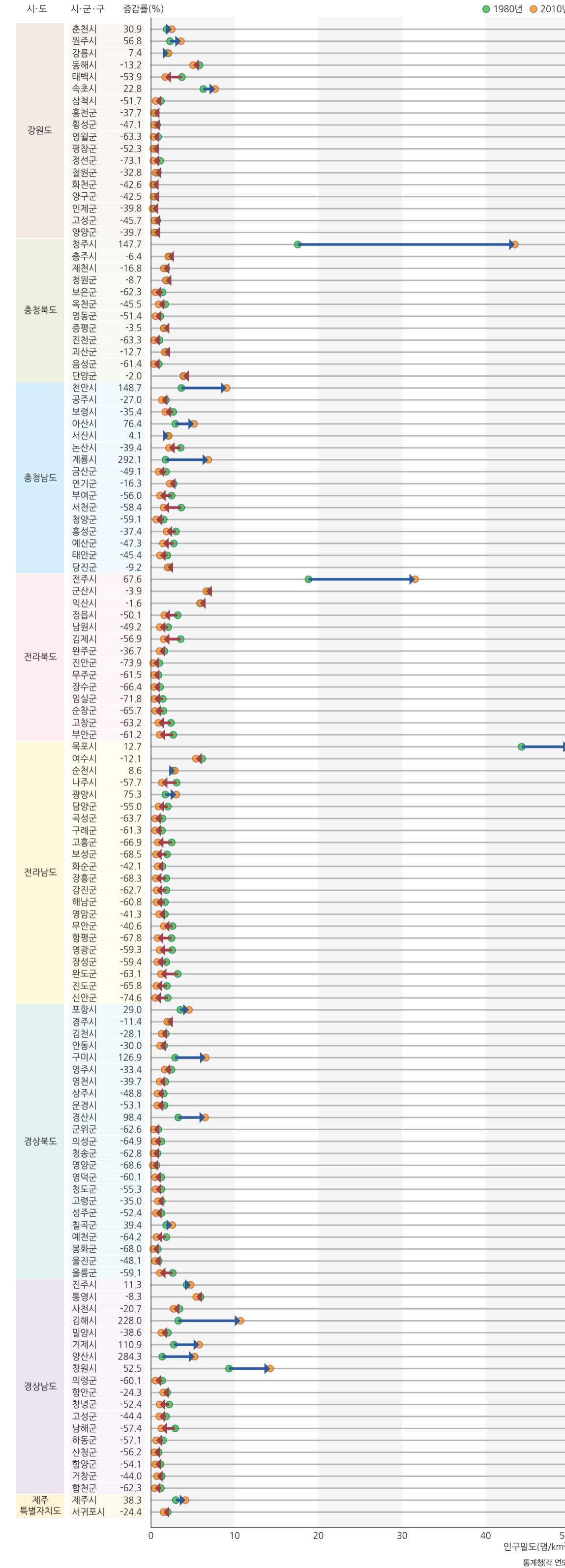
사도 인구밀도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	320.4	351.1	378.8	408.8	437.7	449.4	463.9	474.5	485.6	509.2	516.2
서울특별시	9,077.8	11,475.5	13,819.9	15,921.1	17,532.2	16,889.3	16,342.2	16,221.0	16,188.9	16,364.0	15,839.0
부산광역시	5,534.7	6,522.2	7,299.9	8,088.8	7,174.4	5,093.1	4,820.4	4,609.4	4,452.3	4,479.9	4,348.9
대구광역시	-	-	-	4,460.6	4,891.1	2,766.1	2,801.0	2,786.5	2,767.4	2,791.0	2,728.6
인천광역시	-	-	-	6,713.0	5,731.1	2,417.0	2,566.2	2,546.3	2,587.5	2,755.5	2,765.1
광주광역시	-	-	-	-	2,273.8	2,508.8	2,697.8	2,827.5	2,945.6	2,998.8	2,948.5
대전광역시	-	-	-	-	1,954.6	2,356.3	2,534.5	2,673.0	2,781.2	2,852.3	2,758.1
울산광역시	-	-	-	-	-	960.4	-	-	1,022.3	1,099.6	1,069.0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439.0	761.3
경기도	-	364.8	445.5	441.1	571.1	756.3	886.4	1,028.1	1,119.3	1,226.4	1,325.3
강원도	111.7	110.0	106.6	102.2	93.3	88.7	89.7	88.2	88.2	90.2	90.4
충청북도	200.7	204.4	191.1	187.7	186.6	187.9	197.3	196.5	203.4	214.6	220.3
충청남도	327.8	336.6	336.6	340.0	242.2	206.7	214.9	219.7	235.0	256.6	264.0
전라북도	303.1	304.4	284.4	273.3	257.7	236.0	234.9	221.5	220.3	227.4	223.4
전라남도	331.8	329.9	310.0	306.6	212.2	173.5	166.6	150.7	142.2	146.1	144.9
경상북도	-	245.3	249.9	154.4	147.7	140.7	143.2	137.1	136.6	140.8	138.9
경상남도	262.3	274.4	280.0	296.6	311.1	332.5	283.2	290.5	300.0	316.4	316.2
제주특별자치도	200.8	226.6	253.3	267.7	282.2	273.9	278.0	287.8	287.7	327.5	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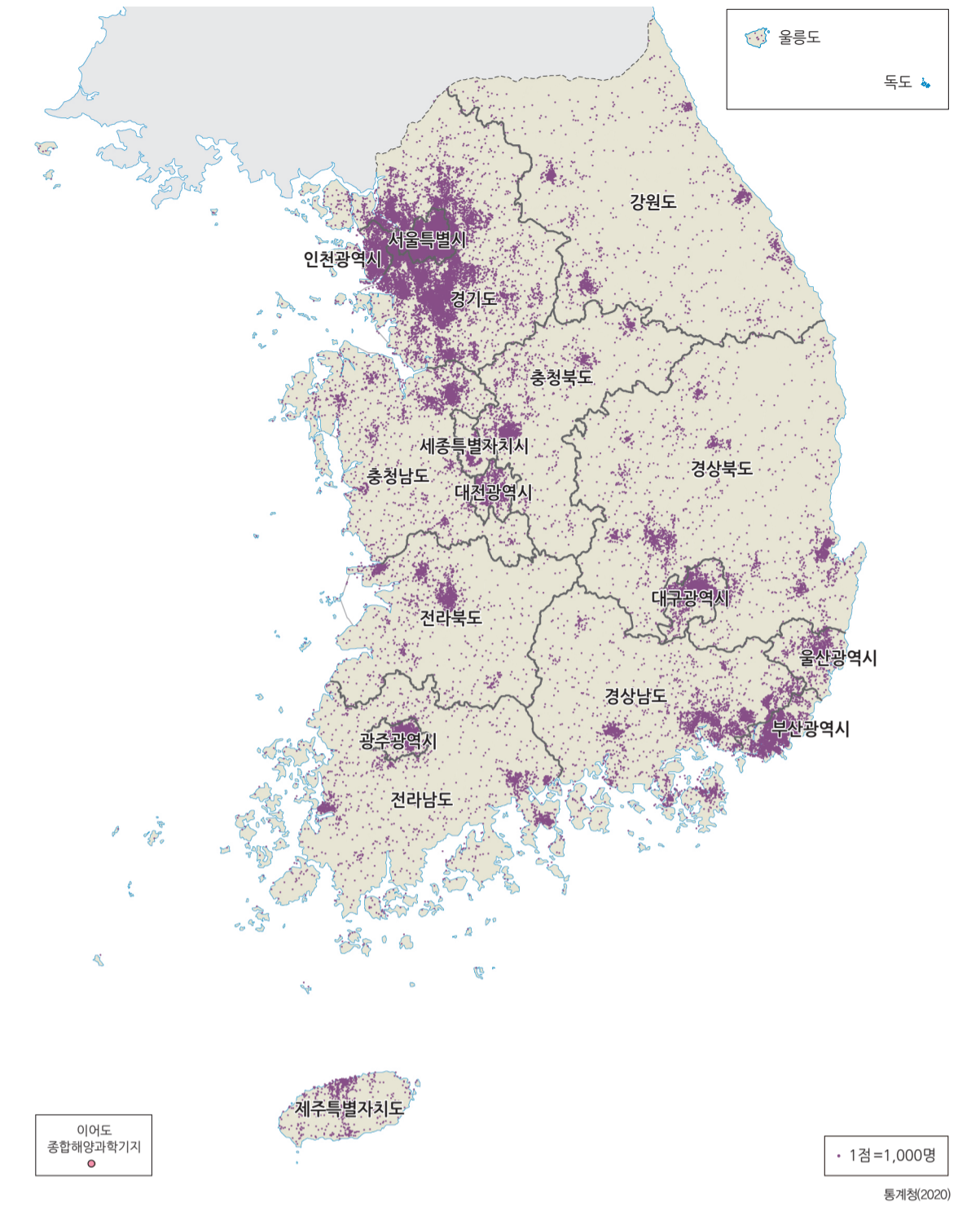
시·군·구 인구밀도 변화(1980-2010년)



시·군·구 인구밀도 변화(198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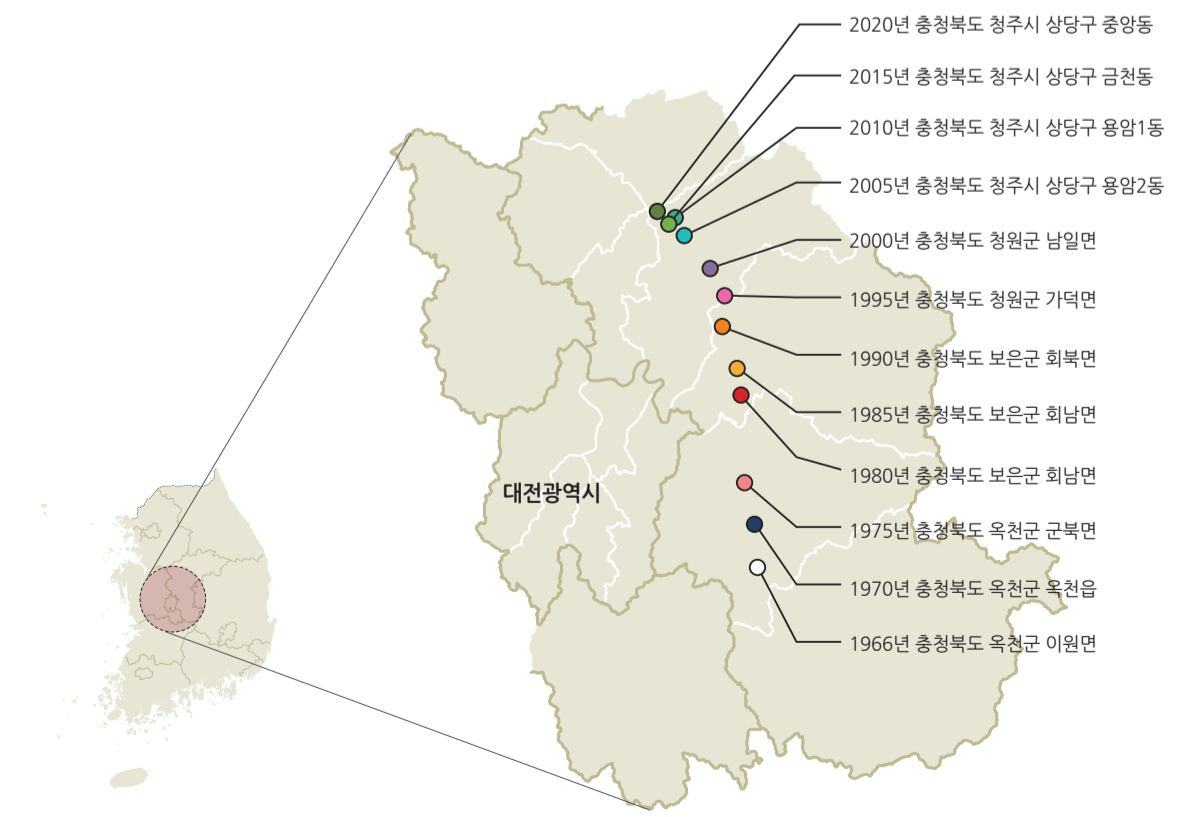
인구 분포(2020년)



1949-2020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약 210명/km²에서 약 520명/km²로 급증하였으며,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광역시와 경기도의 인구밀도는 전국 수준보다 높으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1990년과 1995년 사이 인천의 인구밀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용진군과 강화군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편입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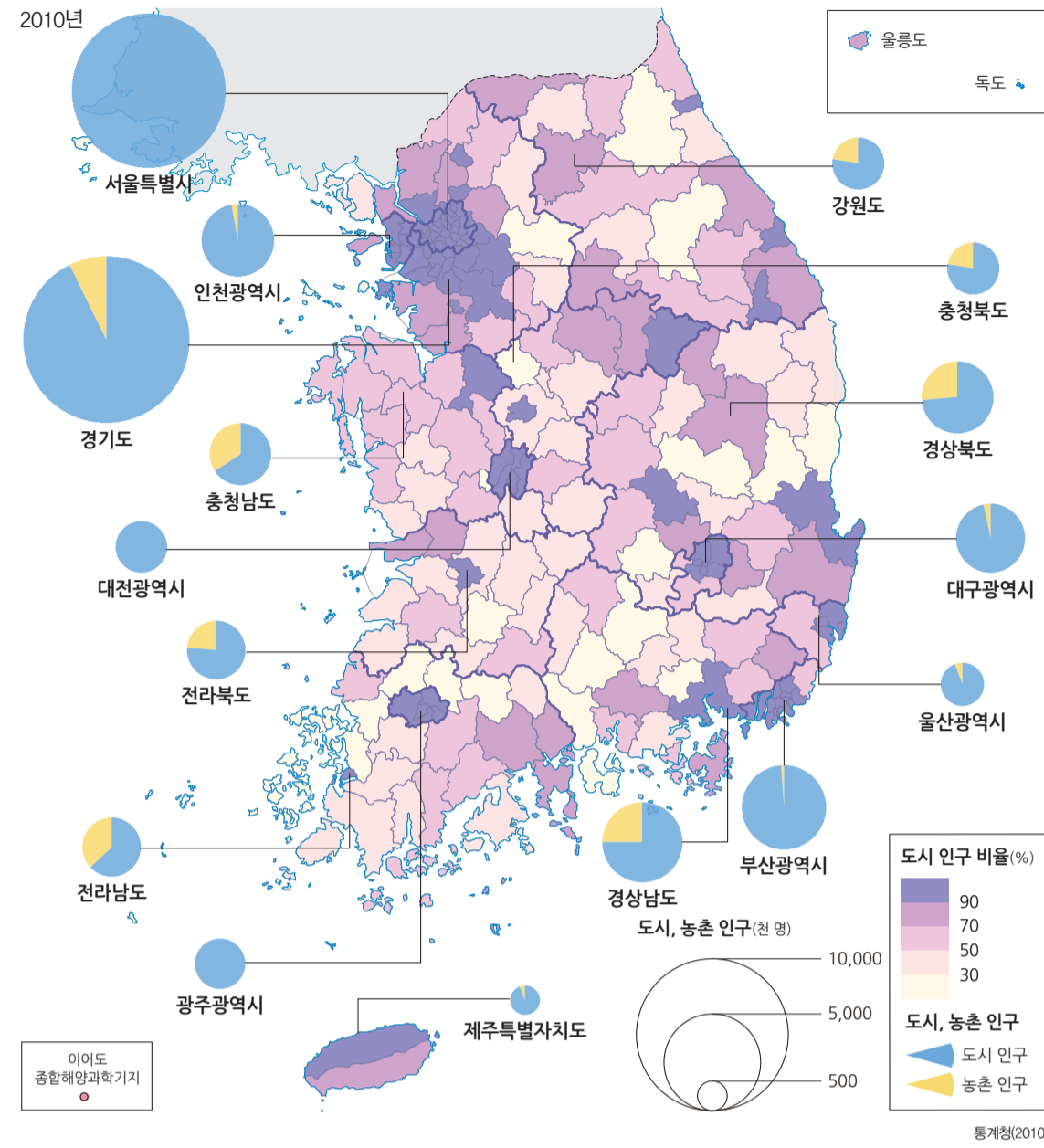
1980-2010년 사이 인구밀도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인구밀도가 낮아진 시·군·구보다 높아진 수가 더 많았으며, 이들 중 50% 정도가 수도권에 소재한 지역이다. 100% 이상으로 인구밀도가 증가한 50개 시·군·구 중 약 42%가 경기도에 속하는 지역이다. 인구밀도의 감소가 나타난 시·군·구 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순으로 많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인구 중심점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중심점은 계속해서 수도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구 중심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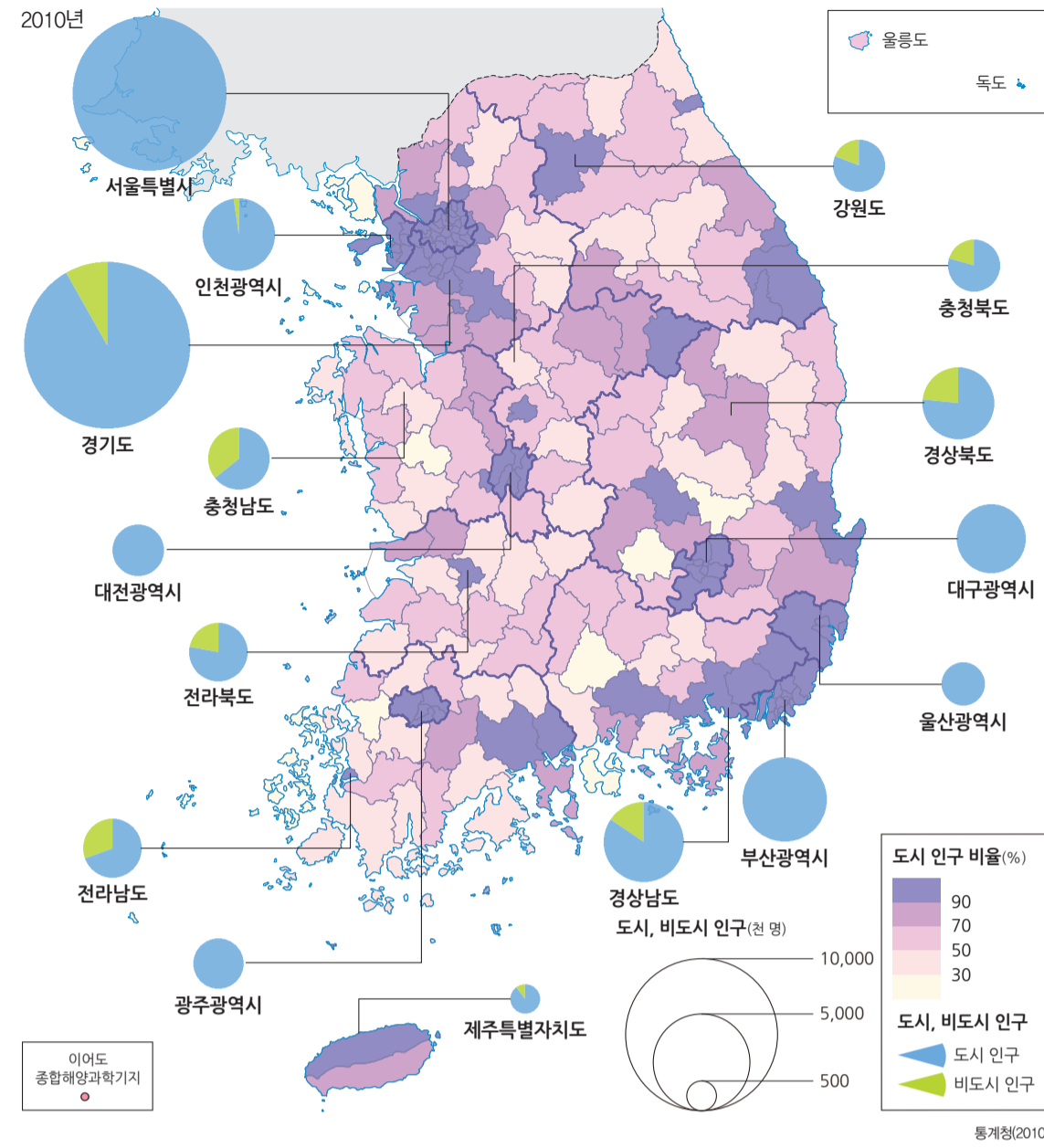


도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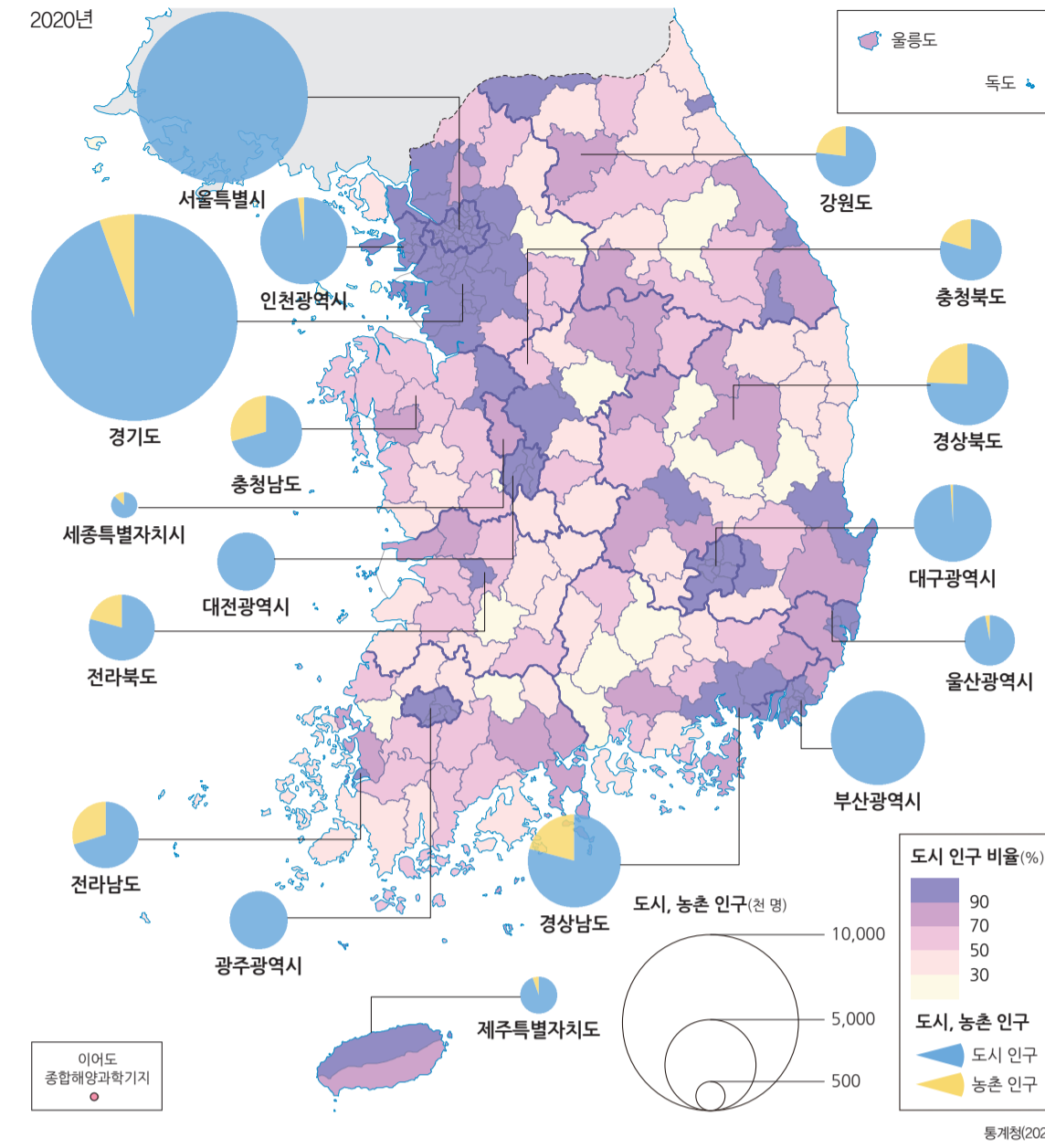
행정 구역 기준 도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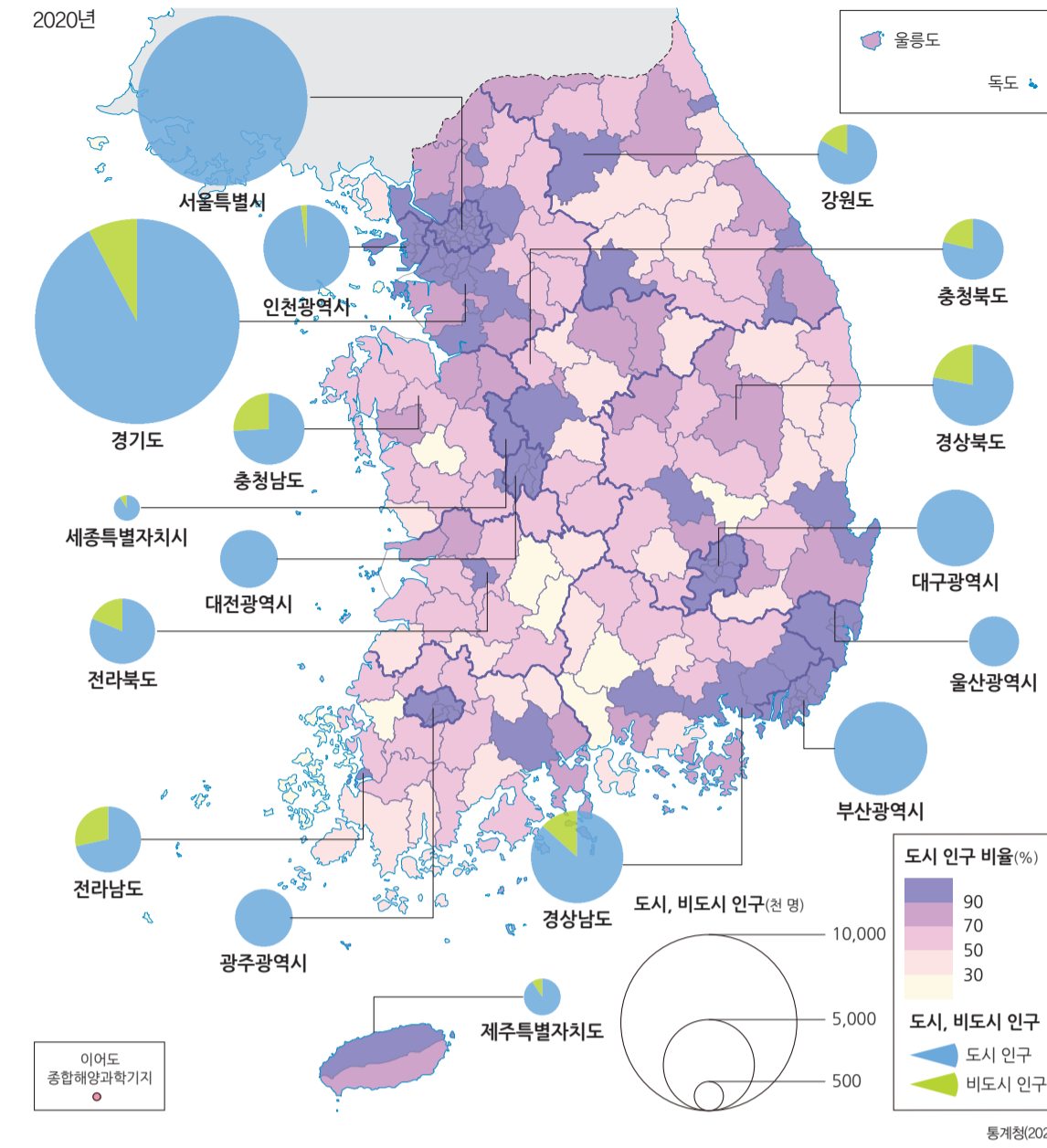
용도 지역 기준 도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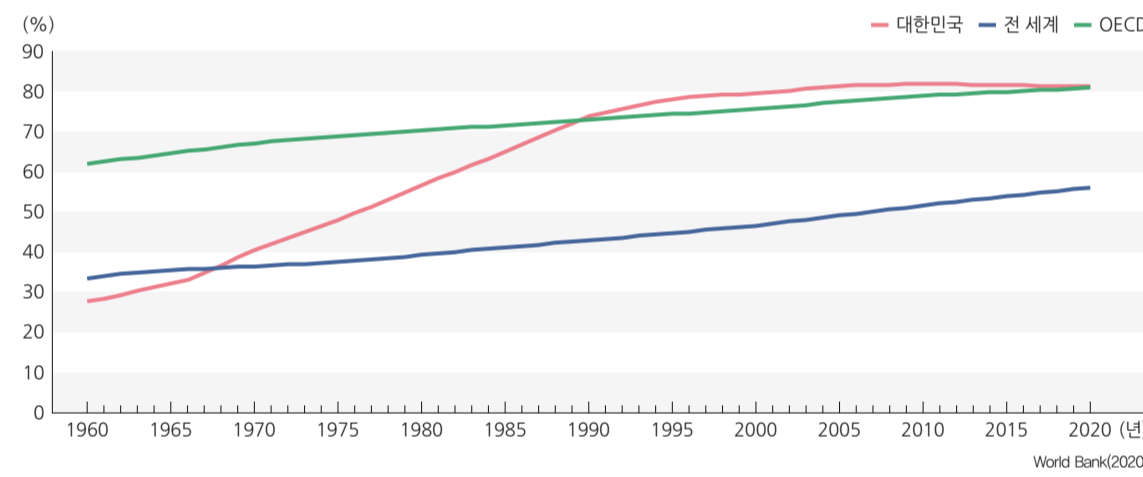
행정 구역 기준 도시 인구



용도 지역 기준 도시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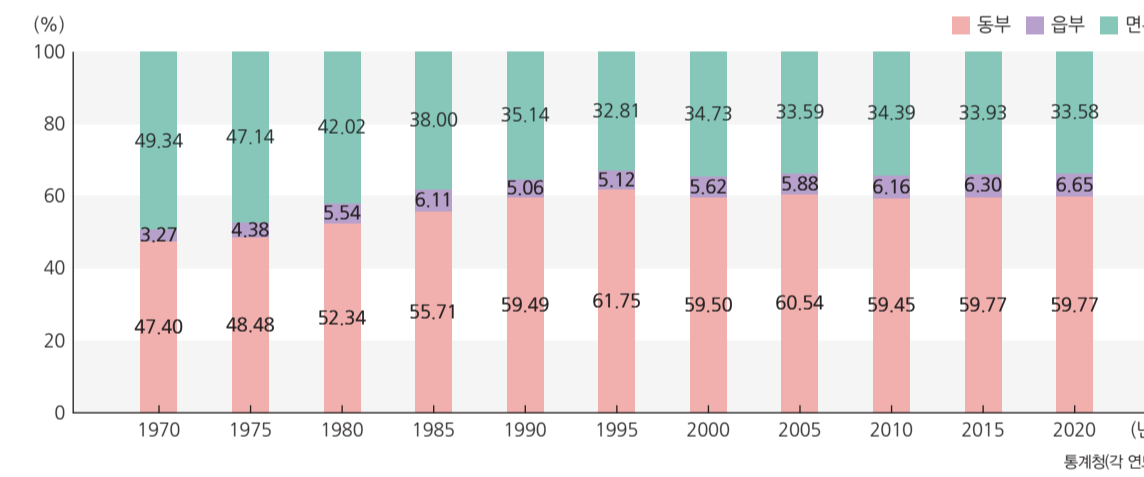
대한민국, OECD, 세계 도시 인구 비율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도시 인구 비중은 세계 평균보다 높고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지역을 행정 구역(동·읍 지역)과 용도 지역(용도 지역 상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시 인구를 집계하며, 각각의 기준으로 산정한 도시 인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용도 지역 기준 도시 인구는 대도시에서 넓은 면적으로 분포하는데, 이들 지역에서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촌 지역 면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도시 지역인 동·읍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동·읍 구성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국의 약 50%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최근에도 다른 권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권역의 인구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한다. 이는 2010년과 2020년 시·도 및 시·군·구의 도시 인구나 도시 면적 분포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인당 도시 면적 비율의 경우 대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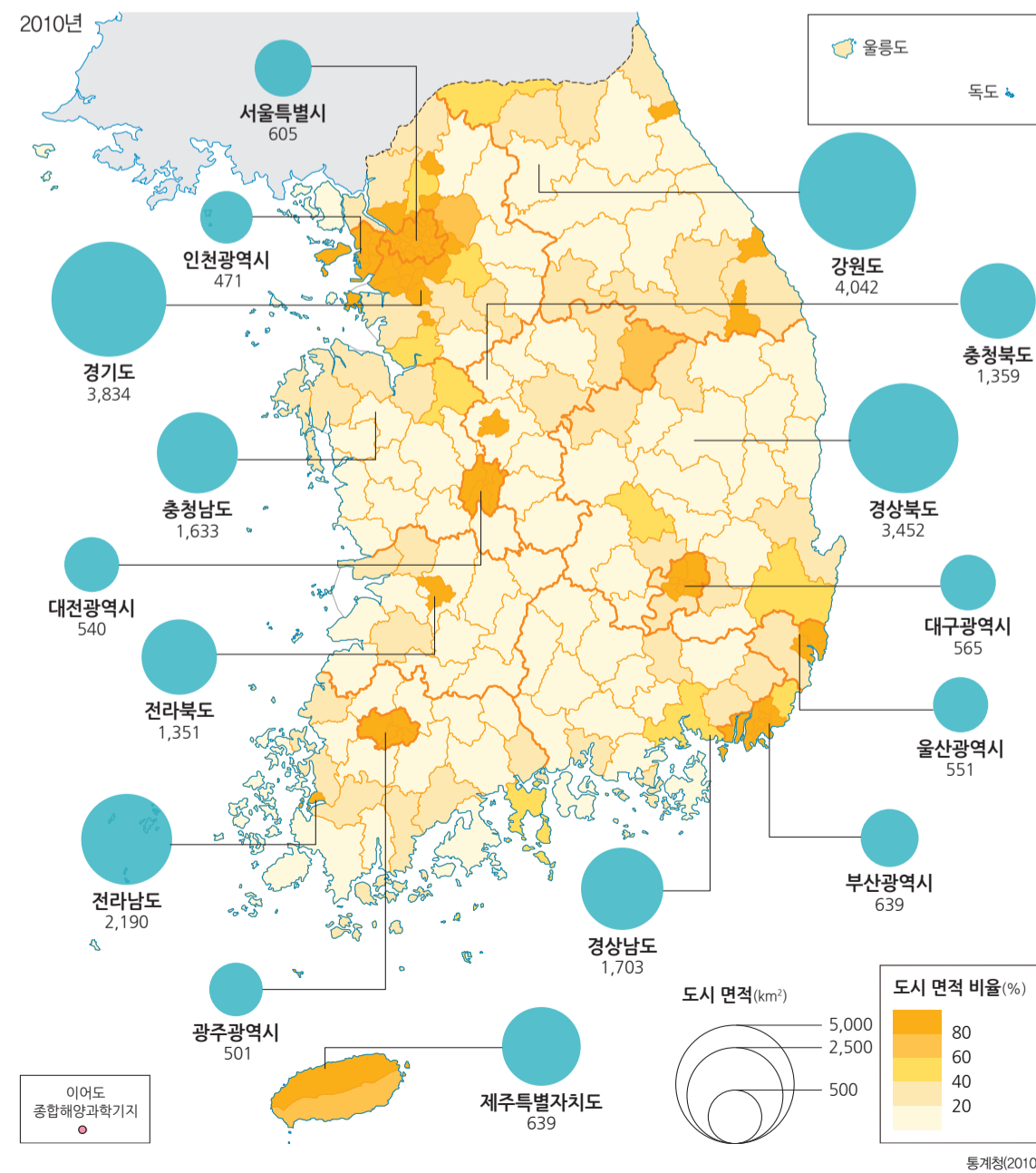
동·읍·면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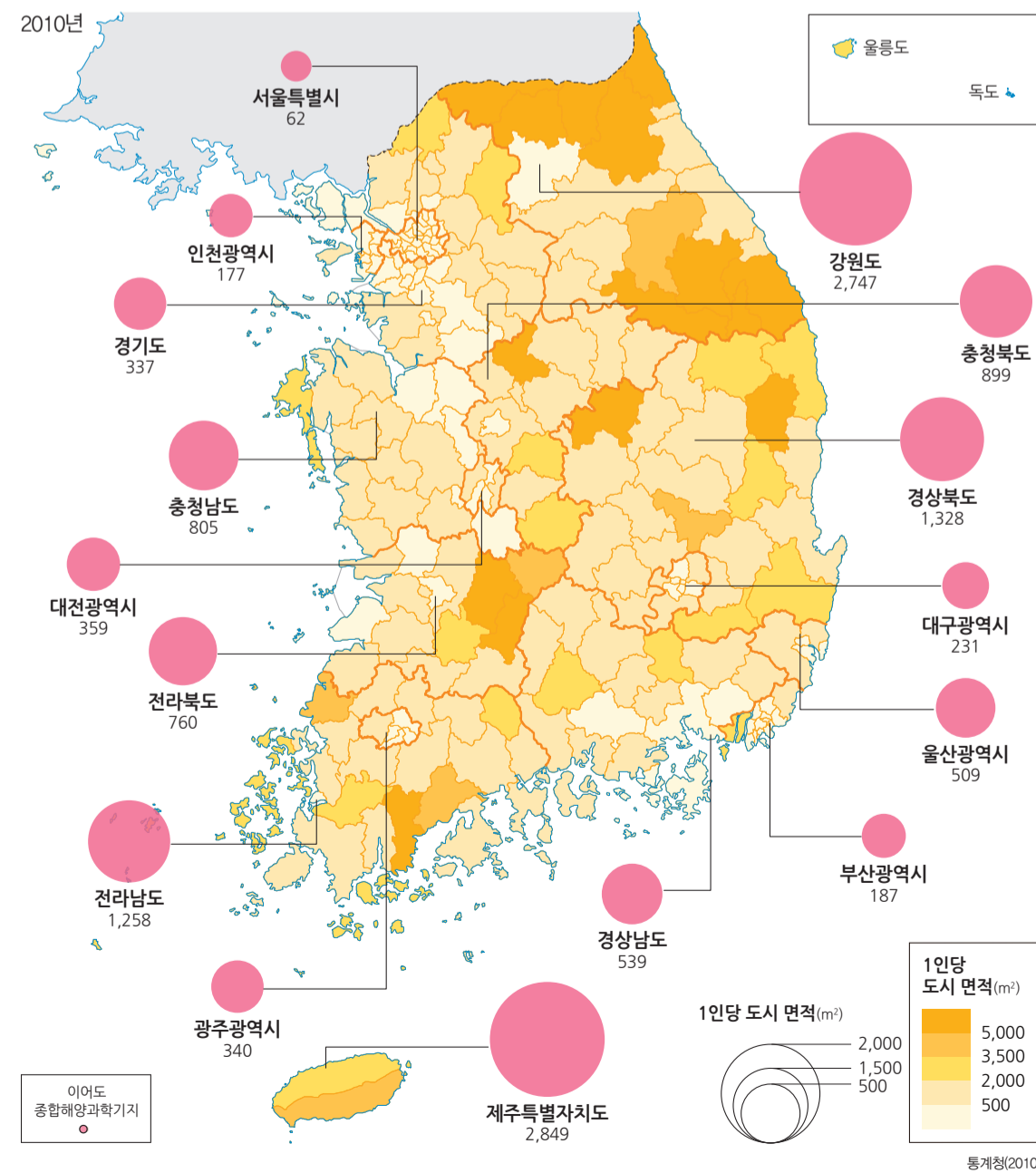
권역별 동·읍·면 구성비

권역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수도권	29.8	33.7	34.4	34.8	37.2	39.4	43.7	44.5	42.9	43.5	43.4
강원권	5.3	5.8	6.1	6.2	5.7	5.5	4.3	4.1	4.3	4.2	4.2
충청권	9.1	8.0	7.9	7.8	8.7	8.6	8.6	8.7	9.1	9.5	9.8
호남권	15.3	15.0	13.6	14.4	14.3	13.8	12.5	12.3	12.6	12.7	12.8
영남권	39.2	36.4	36.9	34.9	32.5	31.2	29.3	28.8	29.4	28.4	28.1
제주도	1.2	1.1	1.1	1.9	1.7	1.5	1.7	1.6	1.7	1.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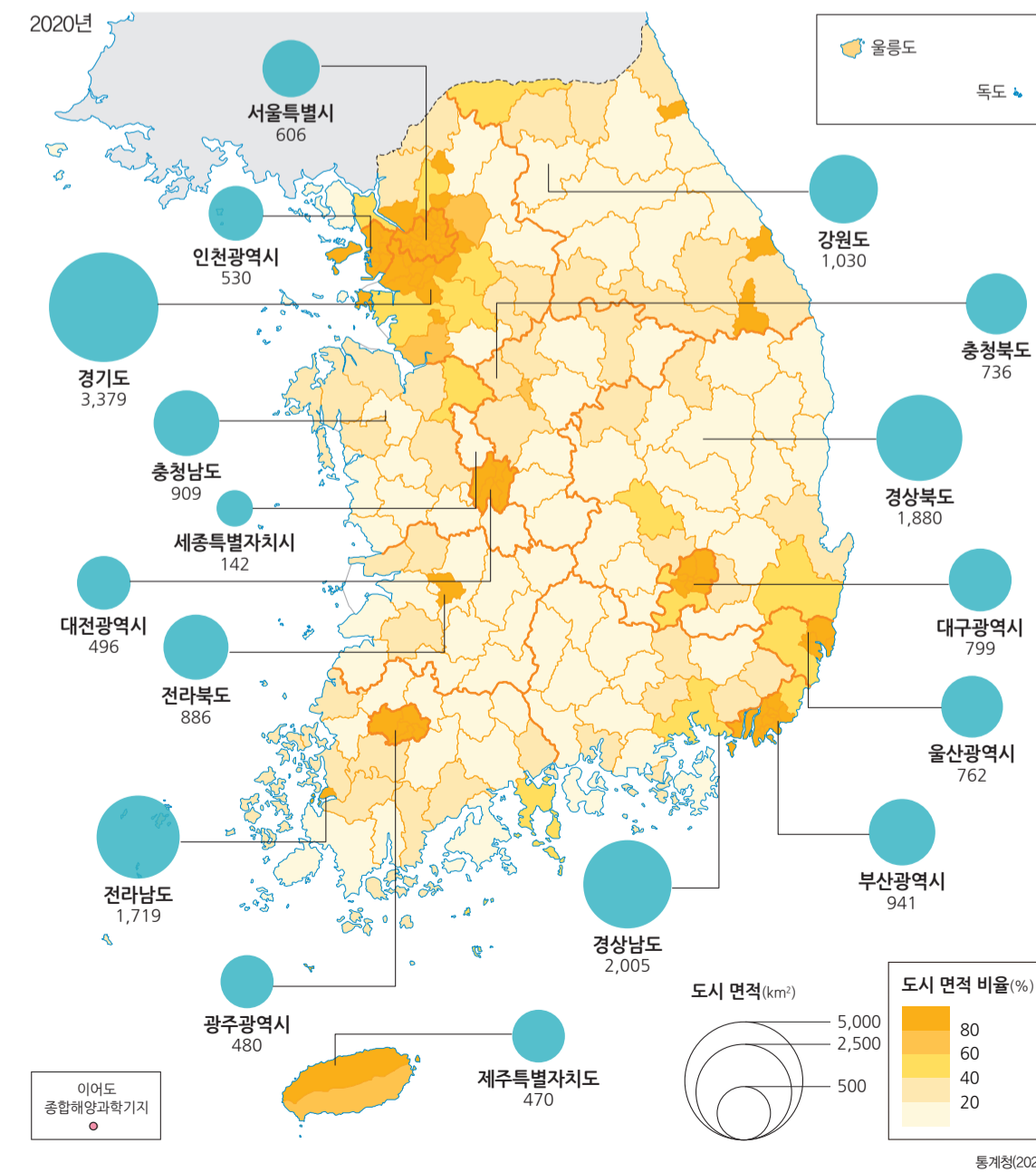
도시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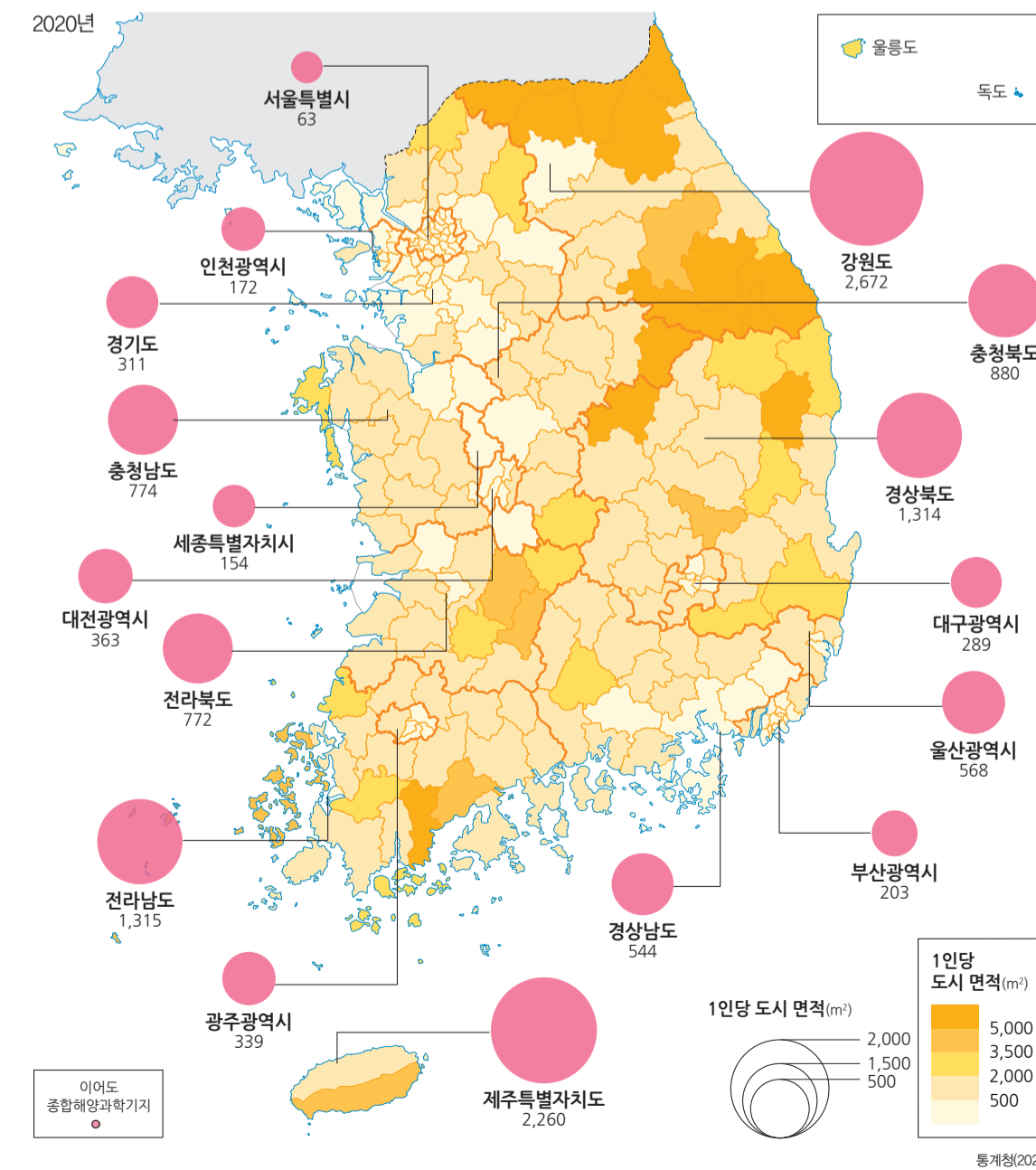
1인당 도시 면적



도시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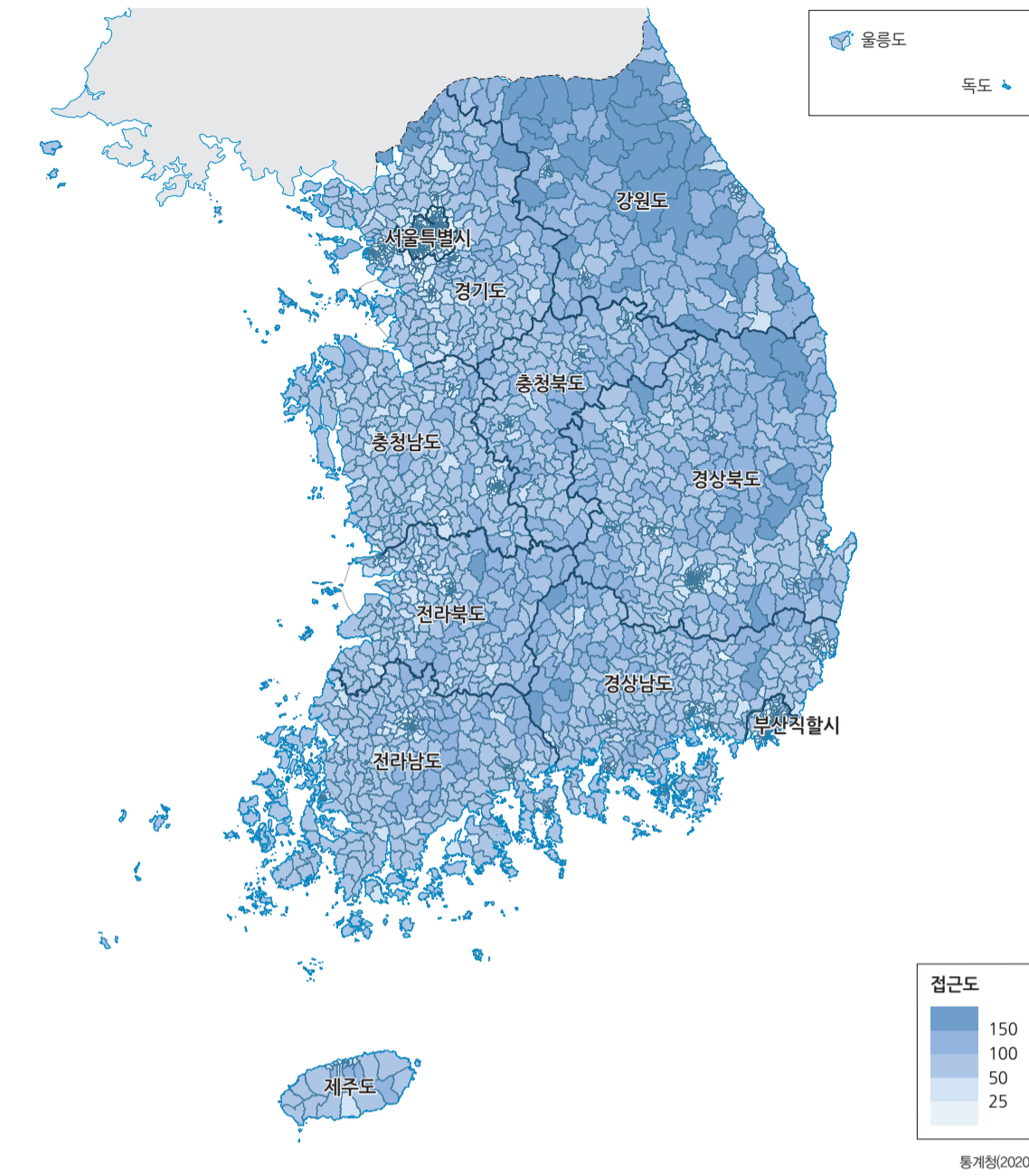


1인당 도시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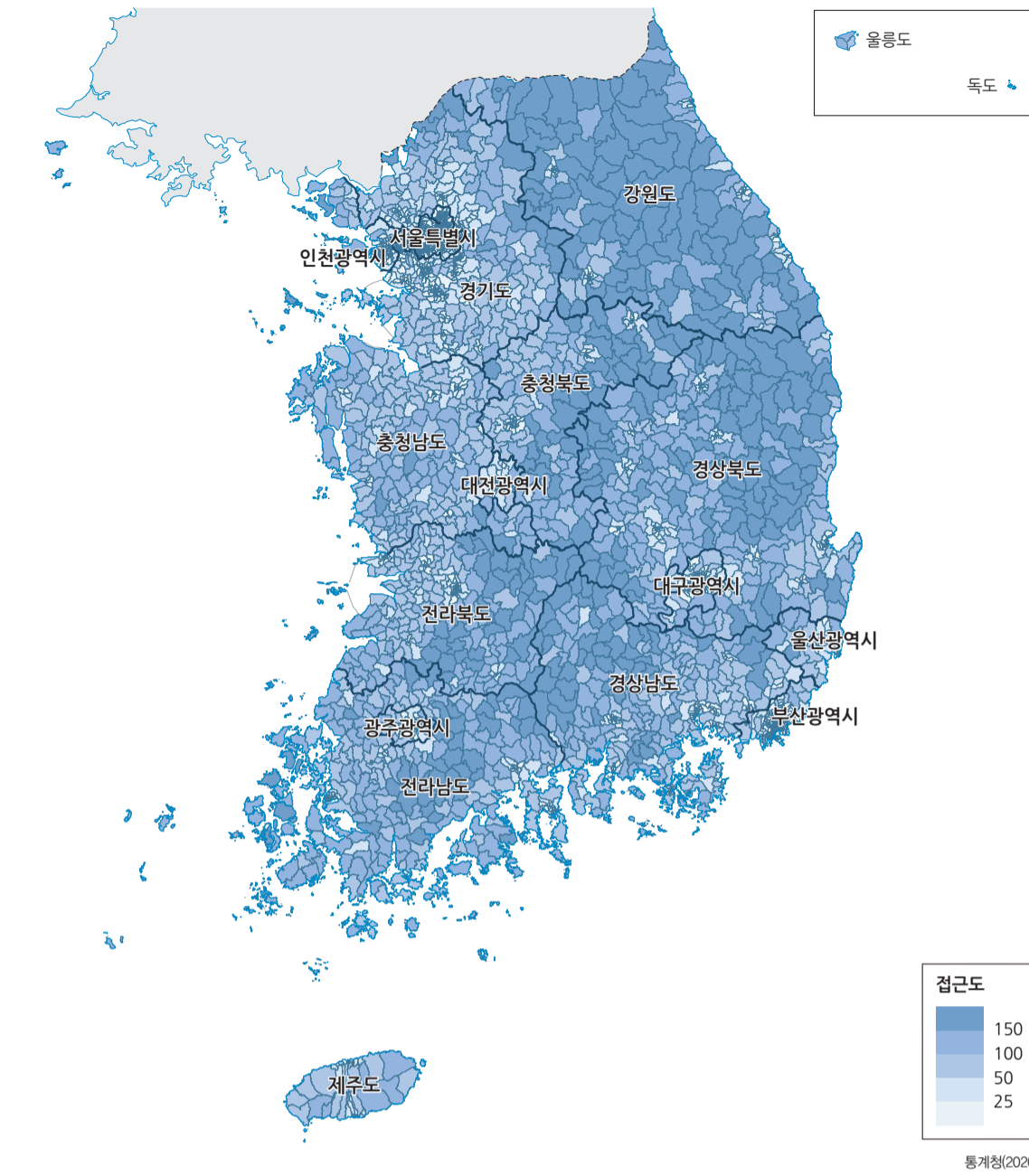


인구 접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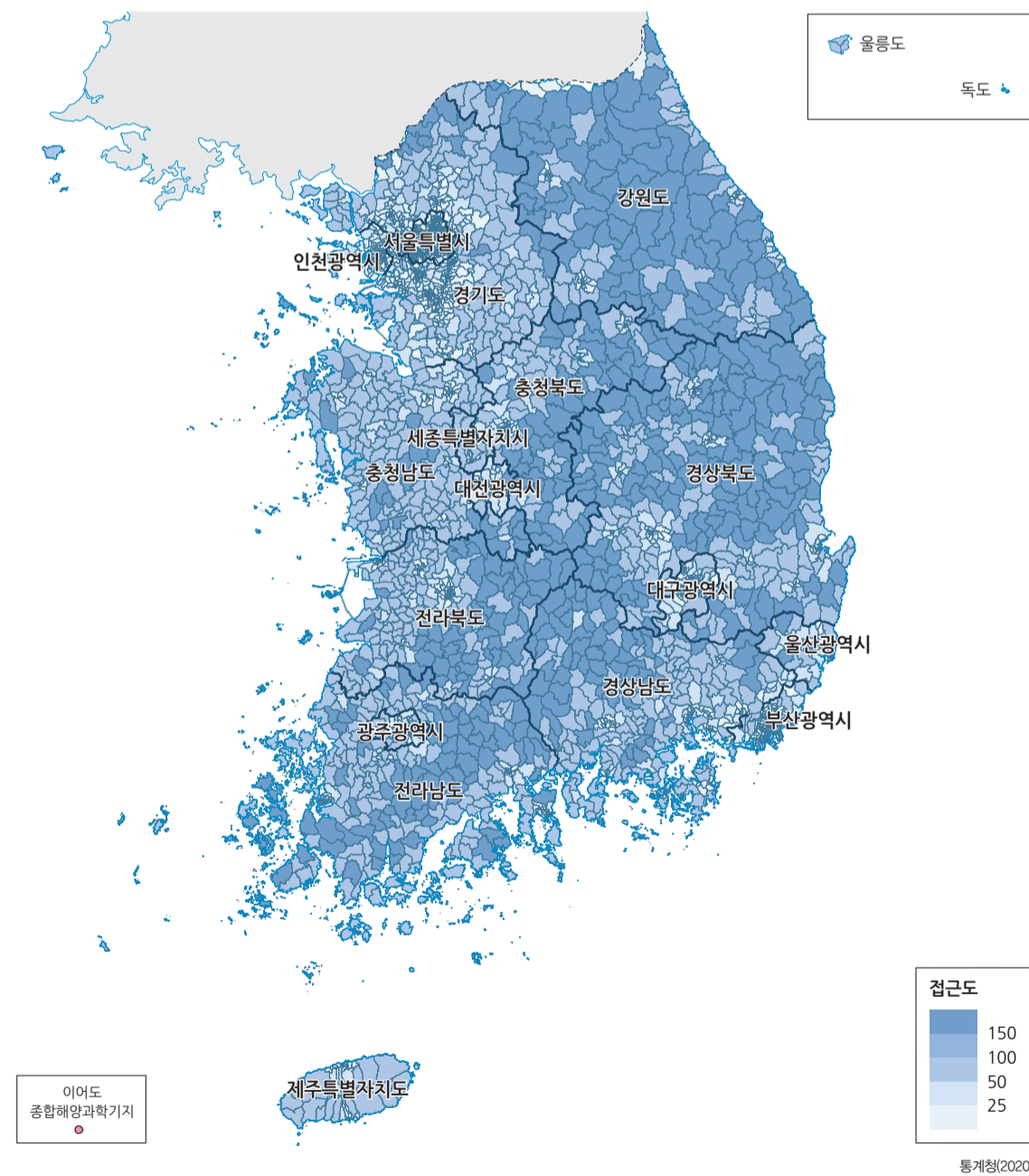
인구 접근도(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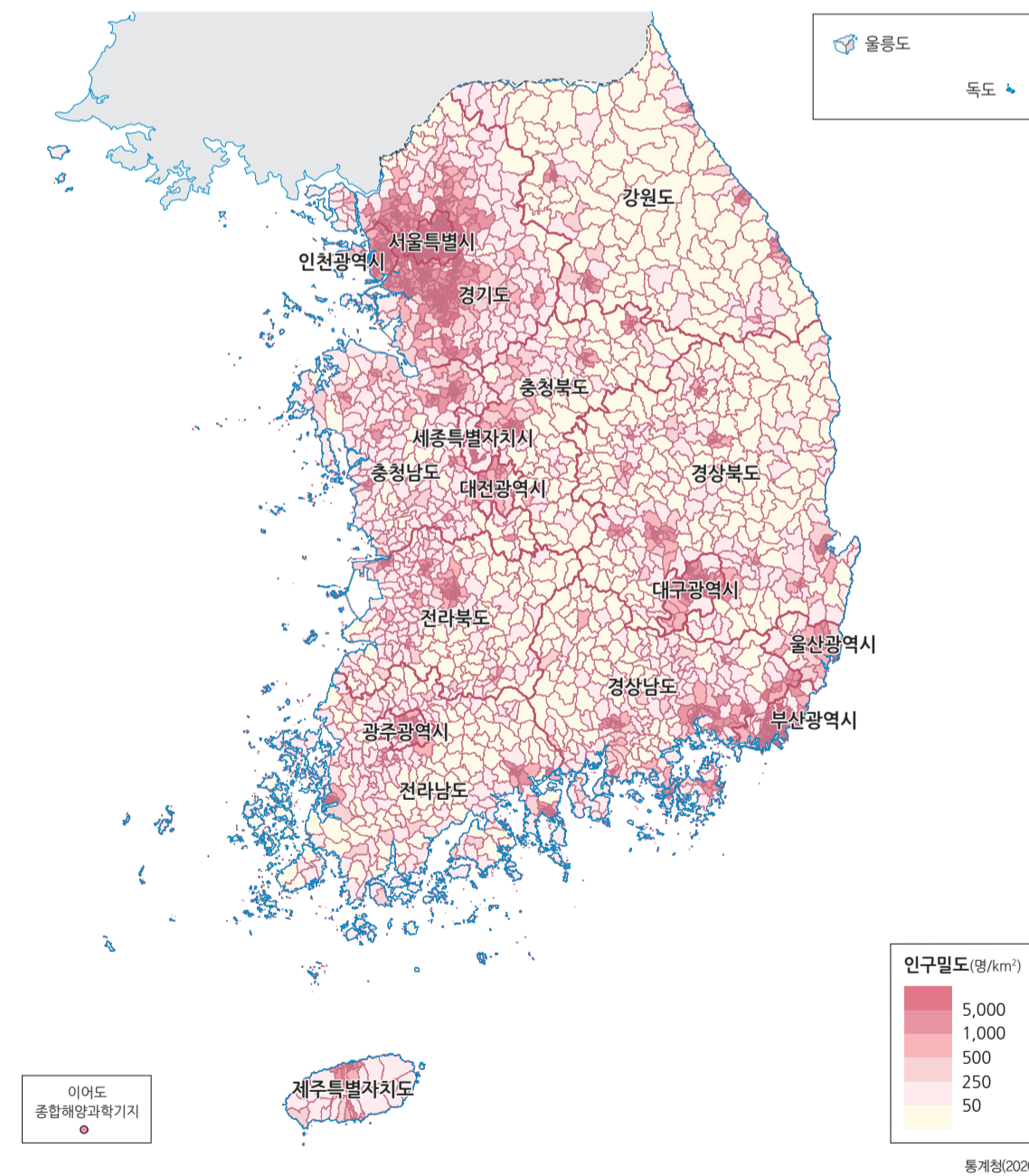
인구 접근도(2000년)



인구 접근도(2020년)



인구 밀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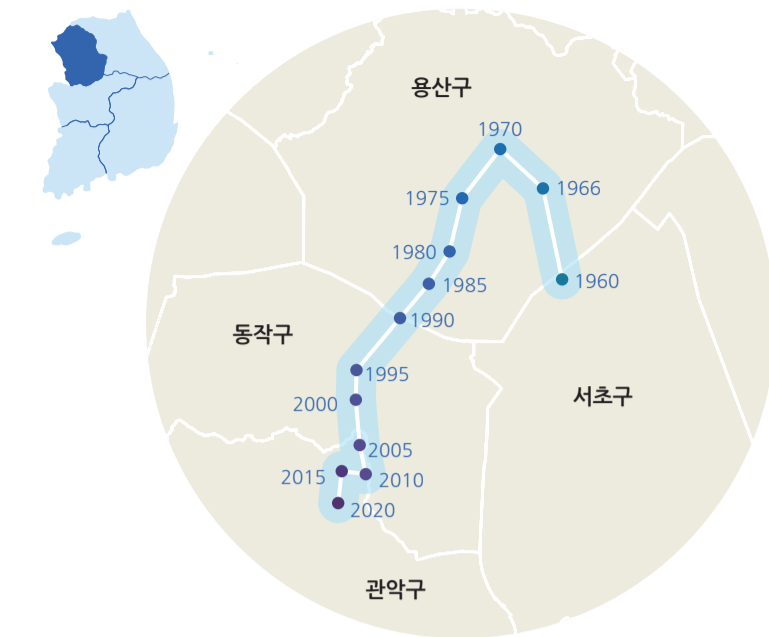
인구의 밀집 정도는 인구 밀도 또는 인구 접근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인구 접근도는 단위 지역에 대한 균등한 인구 분포를 가정할 때 사람 간 평균 거리($\sqrt{\text{면적(m}^2\text{)/인구(명)}}$)로 산출된다. 외국인을 포함할 때 우리나라 인구 접근도는 1980년 약 52m에서 2020년 약 44m로 짧아졌는데, 이는 인구 증가에 따라 밀집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동·읍·면 인구 접근도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그 지역적 분포가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접근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태백산맥과 내륙 지역에서 높은데, 이들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인구 접근도가 높은 지역은 2000년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과 내륙 지역으로 확

대되었고, 2020년에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접근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동·읍·면의 2020년 인구 밀도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분포 변화는 권역별 인구 중심점 분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중심은 1970~2020년 사이 남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경기 서부 및 남부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낮은 인구 접근도와 높은 인구 밀도). 강원권의 인구 중심점은 대체로 수도권 방향인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충청권의 인구

중심점은 1960~1990년 사이에는 대전광역시 방향인 남동쪽으로 이동하였는데, 1995~2020년 기간에는 수도권 방향인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영남권의 인구 중심은 대체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방향인 남동쪽의 이동 현상이 두드러지며, 호남권의 인구 중심은 1970~2020년 사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제주도 인구 중심점은 해안에 가까운 제주시 도심 지역으로 이동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인구 중심점 간 이동 거리는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 짧아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권역별 인구 중심점 변화

수도권



수도권 인구 중심점 위치와 중심점 간 거리

연도	위치*	거리(km)**
19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번포2동	-
196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5
197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0.9
19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동	1.0
198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0.9
19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2동	0.6
199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0.7
1995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1
2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0.5
2005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동	0.7
20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동	0.5
20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0.4
202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	0.5

* 2020년 행정 구역(행정동) 기준임
** 두 연도의 인구 중심점 간 거리(단위: 1966의 거리는 1960년과 1966년 인구 중심점 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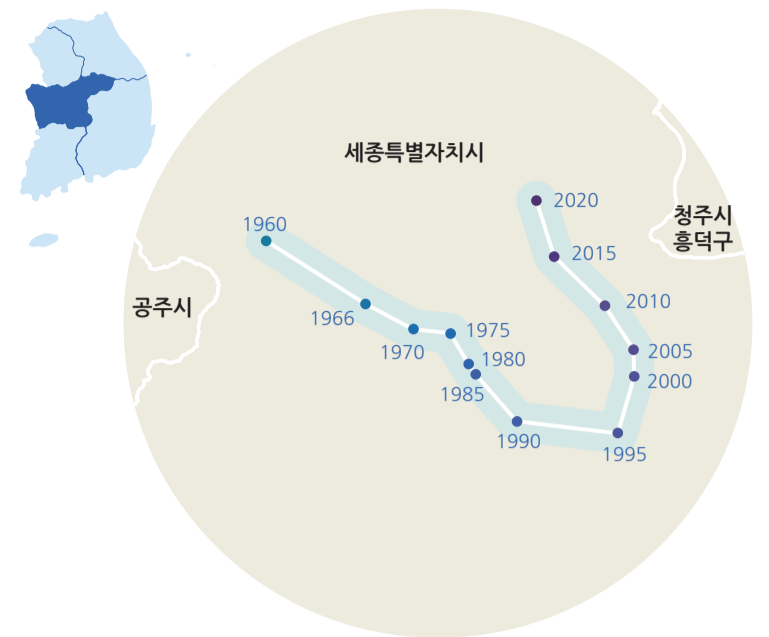
강원권



강원권 인구 중심점 위치와 중심점 간 거리

연도	위치	거리(km)
196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원거리	-
1966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거리	8.5
197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원거리	1.7
1975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1.5
198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2.0
1985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0.4
199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2.7
1995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홍정리	4.6
2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홍정리	1.6
2005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홍정리	1.3
201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홍정리	1.8
2015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1.1
2020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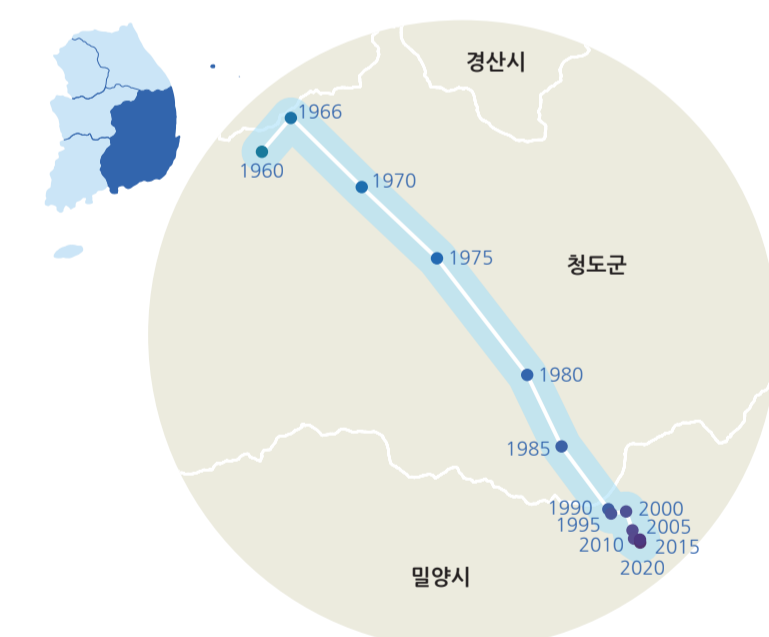
충청권



충청권 인구 중심점 위치와 중심점 간 거리

연도	위치	거리(km)
196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용암리	-
1966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기룡리	2.2
197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1.0
197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0.7
198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0.9
198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0.2
199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1.4
199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9
200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1
20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0.5
201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0
201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3
202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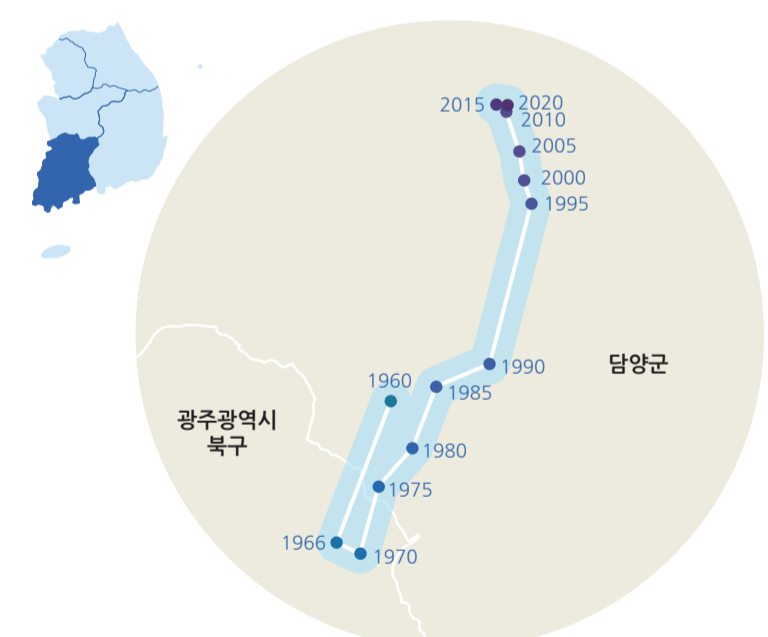
영남권



영남권 인구 중심점 위치와 중심점 간 거리

연도	위치	거리(km)
1960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아리	-
1966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문수리	1.8
1970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4.0
1975	경상남도 청도군 화양읍 놀이리	4.2
1980	경상남도 청도군 청도를 원리	6.0
198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를 유호리	3.2
199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경리	3.2
1995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경리	0.2
200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경리	0.6
2005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경리	0.8
201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경리	0.3
2015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고경리	0.3
2020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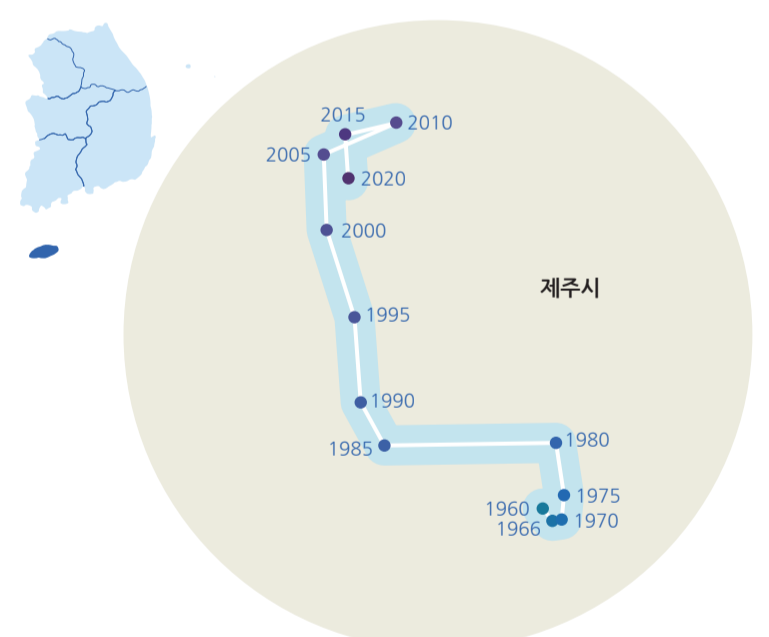
호남권



호남권 인구 중심점 위치와 중심점 간 거리

연도	위치	거리(km)
1960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
1966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	2.6
197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	0.5
1975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1.2
1980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0.9
1985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1.2
1990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1.0
1995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2.9
2000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0.4
2005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0.5
2010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0.7
2015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0.2
2020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0.2

제주도



제주도 인구 중심점 위치와 중심점 간 거리

연도	위치	거리(km)
19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
196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1
19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0
19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1
19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2
19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8
19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2
19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4
2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4
20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3
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4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2
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0.2